

HUFS GUIDEBOOK

2016
한국외대
논술
가이드북



2016
한국외대
논술
가이드북



2016 한국외대 논술 가이드북 Contents

- 01 발간사 / 입학처장 메시지 • 4
- 02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주요사항 안내 • 6
- 03 논술고사 출제 방향과 논제 유형별 접근 방법 • 16

- 04 201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 24
- 05 2016학년도 모의논술 출제 의도 및 해설 • 30
- 06 2016학년도 모의논술 출제 및 채점 기준 • 34
- 07 2016학년도 모의논술 예시답안 • 42

- 08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 • 44
 -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 • 44
 -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 • 49
 -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I) • 55
 -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V) • 60

H U F S

V E R I T A S

P A X

C R E A T I O

09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출제 의도 및 해설 • 65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 • 65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 • 69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I) • 73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V) • 77

10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출제 및 채점 기준 • 81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 • 81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 • 88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I) • 95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V) • 102

11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예시답안 • 110

12 2015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 118

13 2015학년도 모의논술 출제 의도 및 해설 • 123

14 2015학년도 모의논술 출제 및 채점 기준 • 127

15 2015학년도 모의논술 예시답안 • 134

[별첨] 수시모집 논술전형 실전 답안지 견본



01 발간사 / 입학처장 메시지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장 유기환 교수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논술고사와 관련해서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 도움을 주고, 고등학교 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저 자신도 몇 차례의 논술출제위원장 경험을 바탕으로 ‘출제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일반론적 논술특강’을 준비해서 여러 고등학교를 방문했고, 작년 겨울방학에는 ‘논술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고등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1주일 동안 ‘모의 논술출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앞으로도 고등학교의 논술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15학년도 입시부터 논술 출제의 틀을 바꾸었고, 이 틀을 2016학년도 입시에서도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논술 문제는 두 Part로 나뉘며, Part I에서는 주로 ‘요지 파악’, ‘비판 평가’를 요구하는 2문항으로, Part II에서는 주로 ‘비교 분석’, ‘적용 추론’을 요구하는 2문항으로 구성됩니다. 문제를 두 Part로 나눈 취지는 한 Part에서 고전한 학생도 다른 Part에서 만회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출제의 전 과정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동참하게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눈높이에 어울리는 텍스트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6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수험생 여러분 모두가 소망스러운 결과를 얻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15년 7월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장 **유기환**



02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주요사항 안내

01. 한국외국어대학교 2016학년도 수시모집 주요사항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을 통해 총 1,864명을 선발한다. 학생부 중심의 전형을 확대하고, 논술전형에서는 고등학교 교사를 논술고사 출제위원으로 위촉하여, 논술고사에 활용되는 제시문과 자료, 그리고 이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논술문항)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되도록 노력하였다. 외국어특기자전형은 공인어학성적과 외국어에세이 점수를 합산하여 선발하던 방식에서, 학생부종합전형과 동일하게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되었다. 1단계에서는 자기소개서와 활동보고서를 바탕으로 서류평가를 진행하고, 공인어학성적 뿐만 아니라 외국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교내외 수상실적 및 활동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외국어 면접을 바탕으로 해당 외국어 분야의 잠재력과 역량 및 글로벌 소양을 평가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특기자전형을 통해 신설 모집단위인 바이오메디컬공학부(Bio Medical Engineering)에서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 방식은 외국어특기자전형과 동일하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며,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에만 적용한다.

2016학년도 수시모집 주요 변동사항

전형		2015			2016		
		인원	선발방식	수능 최저 적용	인원	선발방식	수능 최저 적용
학생부 교과		413 서울:115 글로벌:298	학생부 교과 100%	○	468 서울:165 글로벌:303	좌동	○
학생부 종합		644 서울:333 글로벌:311	1단계:서류평가 100%(3배수) 2단계:1단계 70% + 면접 30%	×	700 서울:376 글로벌:324	좌동	×
논술		631 서울:511 글로벌:120	논술 70% 학생부 교과 30%	○	564 서울:474 글로벌:90	좌동	○
특 기 자	외국어	149 서울:114 글로벌:35	외국어에세이 70% 공인어학성적 30%	×	129 서울:102 글로벌:27	1단계:서류평가 100%(3배수) 2단계:1단계 70% + 면접 30%	×
	과학	-	-	-	3 글로벌:3	1단계:서류평가 100%(3배수) 2단계:1단계 70% + 면접 30%	×
계		1,837 서울:1,073 글로벌:764			1,864 서울:1,117 글로벌:747		

‘글로벌 융복합 선도대학’을 목표로 한 미래지향적 학사조직 개편

2014학년도 LD(Language&Diplomacy)학부, 2015학년도 LT(Language&Trade)학부 신설로 대변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미래지향적 학사조직 개편은 ‘글로벌 융복합 선도대학’을 지향하는 한국외대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2016학년도에도 융복합 교육 모델 구축 등 변화를 지향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으며, 글로벌캠퍼스 인문계열의 Global Business&Technology학부, 자연계열의 바이오메디컬공학부(Bio Medical Engineering) 신설을 통하여 이와 같은 목표를 실현시켜 나가고자 한다.





서울캠퍼스

LD학부 (Language&Diplomacy)

2014학년도에 신설된 LD(Language&Diplomacy)학부(입학정원 35명)는 한국외대의 오랜 외교분야의 전통을 융복합 교육과정으로 체계화한 모집 단위로서, 4년 장학금, 기숙사 우선배정, 이중전공 및 파견학생 우선배정, 전용 면학실 제공, 통번역대학원 필기 입학시험 면제 및 식사과정 장학금 제공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첫 해부터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한국외대를 대표하는 학과로 자리잡았다. 2014년 10월에는 외교관 양성 교육기관이자 최고의 외교안보분야 싱크탱크인 국립외교원과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명실상부 '외교사관학교'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

LT학부 (Language&Trade)

2015학년도에 한국외대에 특화된 언어교육과 첨단 통상지식을 융합하여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글로벌 산업 및 통상 전문가(국제통상직 고위공무원)를 양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LT(Language&Trade)학부(입학정원 21명)가 신설되었다. 입학생들에게는 LD학부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되며, LD학부와 더불어 외대를 대표하는 쌍두마차로 자리잡았다. 2015년 3월에는 한미FTA를 총괄한 김현중 전(前)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교수로 초빙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통상사관학교'로서의 명맥을 이어나가고자 한다.



글로벌캠퍼스

Global Business& Technology학부

2016학년도에 신설된 Global Business&Technology학부(입학정원 70명)는 한국외대만의 특화된 언어 및 지역학 교육역량을 기반으로 IT분야의 글로벌경영에 필요한 전문적 교육과정과 실무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개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4년간 경영, IT, 외국어를 심도있게 학습하게 되며, 특히 경영 및 IT 관련 교과목의 50% 이상을 영어로 강의하여 영어의사소통 능력과 실무능력을 동시에 갖추 수 있도록 하였다. 4학년이 되면 종합적 실무 프로젝트인 졸업프로젝트(CAPSTONE DESIGN)를 통해 최첨단 글로벌 경영지식과 SW개발, Mobile Platform Application Development, 데이터 분석, 정보보안 등 IT 관련 실무분야에 대한 융합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창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다.

바이오메디컬공학부 (Bio Medical Engineering)

2016학년도에 신설된 바이오메디컬공학부(Bio Medical Engineering)(입학정원 35명)는 의료영상시스템, 정밀수술용 로봇, 고속 통신망을 이용한 U-헬스케어, 나노기술 활용 임상병리기기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바이오산업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올해 신설되었으며, 파격적인 장학금 혜택과 더불어 전용 실습실, 산학연계 인턴십 프로그램, 학석사연계과정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수시모집에서 학생부교과전형으로 7명, 학생부종합전형으로 8명을 선발하며, 수학/과학에 특화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별도로 과학특기자전형을 신설하여 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글로벌캠퍼스 인문계열의 Global Business&Technology학부, 자연계열의 바이오메디컬공학부(Bio Medical Engineering) 신설 외에도 서울캠퍼스의 서양어대학 프랑스어과가 프랑스어학부로 학부제 전환이 이뤄졌으며, 다양한 전공이 개설된 프랑스어학부를 선택하는 수험생의 선택권은 보다 확대되었다. 프랑스어학부의 세 가지 전공은 프랑스어문학을 21세기 ICT 시대에 걸맞게 응용인문학적인 관점으로 재조망하는 프랑스응용어문학전공, 국내 유일의 프랑스어통번역 전공 교육과정인 FATI전공, 프랑스어권뿐만 아니라 EU지역전문가 양성 과정인 프랑스-EU전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범대학 중국어교육과는 최근 IT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약진과 최근 체결된 한중FTA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한국외대의 60년이 넘는 중국어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중국어 교원을 양성할 계획이며, 한국외대만의 특색있는 이중전공제도를 통해 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교원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02. 수시모집 논술전형 주요사항 안내

한국외국어대학교는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을 통해 총 564명을 선발한다. 출제원칙 및 출제유형은 지난해와 동일하며, 서울캠퍼스 전 모집단위와 글로벌캠퍼스 일부 모집단위에서 선발한다. 학생부 교과(30%)와 논술고사(70%)를 합산하여 선발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학력기준이 적용된다.

논술전형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서울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학과·전공	교직 과정	입학 정원	논술
영어대학	영어학과		○	69	17
	영미문학·문화학과		○	69	17
	EICC학과		○	59	16
서양어대학	프랑스어학부	프랑스응용어문학전공 FATI전공 프랑스·EU전공	○*	70	13
	독일어과		○	85	21
	노어과		○	45	9
	스페인어과		○	85	19
	이탈리아어과			30	9
	포르투갈어과			30	9
	네덜란드어과			30	9
	스칸디나비아어과			30	9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30	9
동양어대학	아랍어과		○	45	14
	태국어과			30	9
	베트남어과			30	9
	인도어과			30	9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30	9
	이란어과			30	9
	몽골어과			20	5

대학	모집단위	학과·전공	교직 과정	입학 정원	논술
중국어대학	중국어언어문화학부	중국어언어문화전공	○	56	9
	중국어외교통상학부	중국어외교통상전공	○	52	9
일본어대학	일본어언어문화학부	일본어언어문화전공	○	48	9
	융합일본지역학부	융합일본지역전공	○	35	9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50	19
	행정학과			50	19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언론·정보전공 광고·홍보전공 방송·영상전공		60	20
상경대학	국제통상학과		○	52	18
	경제학부	경제학전공		82	28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	138	49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38	11
	프랑스어교육과			18	5
	독일어교육과			18	3
	한국어교육과			29	7
	중국어교육과			17	4
국제학부		국제학전공		30	5
Language&Diplomacy학부		Language&Diplomacy전공		35	20
Language&Trade학부		Language&Trade전공		21	9
서울캠퍼스 소계				1,676	474

* 2016학년도 학사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해당 모집단위 교직과정의 경우 승인 예정임을 참조 바랍니다.



✧글로벌캠퍼스

대학	모집단위	학과·전공	교직과정	입학정원	논술
인문대학	인문과학계열	철학과	○	102	4
		사학과			4
		언어인지과학과			4
	지식콘텐츠학부	지식콘텐츠전공		16	-
통번역대학	영어통번역학부	영어통번역학전공 영미권통상통번역전공 영미문학번역전공 TESOL영어학전공	○	100	15
	독일어통번역학과		○	50	5
	스페인어통번역학과		○	60	10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30	4
	중국어통번역학과		○	50	5
	일본어통번역학과		○	40	5
	태국어통번역학과			30	4
	아랍어통번역학과		○	45	5
	말레이·인도네시아어통번역학과			30	5
경상대학	Global Business&Technology학부	Global Business&Technology전공		70	15
	국제금융학과		○*	30	5
글로벌캠퍼스 소계				1,701	90
총 계				3,377	564

* 2016학년도 학사조직 개편에 따라 변경되는 해당 모집단위 교직과정의 경우 승인 예정임을 참조 바랍니다.

지원자격 및 전형 방법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에 지원한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고, 본교 지정 영역(국어B, 수학A, 영어, 사회/과학탐구)을 모두 응시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부 교과 30%와 논술고사 70% 비율로 반영하여 총점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논술전형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전형 방법** : 전형 요소별 점수 및 반영비율

선발방법	구 분	전형 요소별 반영비율 및 점수		계
		논술고사	학교생활기록부 교과	
일괄합산	비율	70%	30%	100%
	배점	700점	300점	1,000점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이다. 단, LD학부, LT학부는 별도의 최저학력기준이 있으며, 국어B, 수학A, 영어의 등급 합이 4 이내를 만족하여야 한다.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논술전형으로 선발하는 모집단위에 한하여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인 최저학력기준을 만족하면 된다. LD학부, LT학부를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사회탐구 영역 1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캠퍼스	모집단위	최저학력기준	비고
서울	LD학부, LT학부	국어B, 수학A, 영어의 등급 합이 4 이내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사회탐구 영역 1과목으로 대체 가능
	전 모집단위 (LD학부, LT학부 제외)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4 이내	
글로벌	해당 모집단위	국어B, 수학A, 영어, 사회탐구(2과목 평균) 중 2개 영역 등급 합이 6 이내	



03. 논술고사 세부사항 안내

한국외대의 논술고사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외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사고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통합교과형 문제를 출제한다. 인문학적 요소와 사회과학적 요소의 접합이 한국외대 논술의 X축이라면 그에 조응하는 Y축은 한국외대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3개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language studies)의 내용 요소이다. 둘째, 최대한 교과서와 EBS 수능 교재의 내용을 제시문으로 활용한다.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평이한 수준의 지문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고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논술고사의 출제유형은 작년과 동일하다. Part I에서는 2~3개의 제시문(총 1500자 내외, 영어 제시문 포함)이 주어지며, 이를 토대로 2개의 문항(요지 파악, 비판 평가)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Part II에서는 3개의 제시문(총 2000자 내외, 통계 및 도표 자료 포함)이 주어지며, 이를 토대로 2개의 문항(비교분석, 적용추론)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한다.

✦ 2016학년도 논술고사 출제유형

구분	제시문 수(분량) 및 특징	문항	포인트	글자수	배점
Part I	2~3개(영어 제시문 포함)	1	요지 파악	200자 내외	100
		2	비판 평가	500자 내외	210
Part II	3개(통계 및 도표 자료 포함)	3	비교 분석	400자 내외	180
		4	적용 추론	500자 내외	210

✦ 2016학년도 논술고사 일정 및 세부사항

구분	일정 및 세부사항			
고사장안내	2015. 11. 18(수) 14:00, 한국외대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adms.hufs.ac.kr)			
전형일	2015.11.21(토) 09:00~11:00	2015.11.21(토) 14:00~16:00	2015.11.22(일) 09:00~11:00	2015.11.22(일) 14:00~16:00
모집구분	서울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글로벌 인문과학계열, 통번역대학, 경상대학	서울 상경대학, 경영대학, 사범대학, 국제학부, LD학부, LT학부	서울 영어대학, 중국어대학, 일본어대학, 사회과학대학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지정장소(글로벌캠퍼스 지원자도 서울캠퍼스에서 전형을 실시합니다.)			
시험시간	120분			
시험유형	통합교과형 논술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방법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의 학교생활기록부 성적은 교과 영역 100% 비율로 반영된다. 일괄합산 방식으로 총 1,000점 만점에 논술고사 70%와 학생부 교과 30%로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학교생활기록부 배점이 300점으로, 한국외대 학교생활기록부 환산점수(200점 만점)에 상수 1.5를 곱하여 반영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반영 대상은 2011년 2월 이후(2011년 2월 포함) 국내 정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이며, 반영 교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도덕, 국사 포함) 교과로, 해당 교과 전 과목이 반영된다. 반영 지표로 등급과 원점수를 활용하며, 등급에 의한 환산점수와 원점수에 의한 환산점수 중 상위값을 적용한다.

캠퍼스	모집단위	반영 교과	반영 과목수	반영 학기	반영 방법	반영 지표
서울	전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도덕, 국사 포함)	해당 교과 전 과목	3학년 1학기까지 (단, 졸업자는 전 학년)	등급환산점수 또는 원점수환산점수 중 상위값 적용	등급, 원점수
글로벌	해당 모집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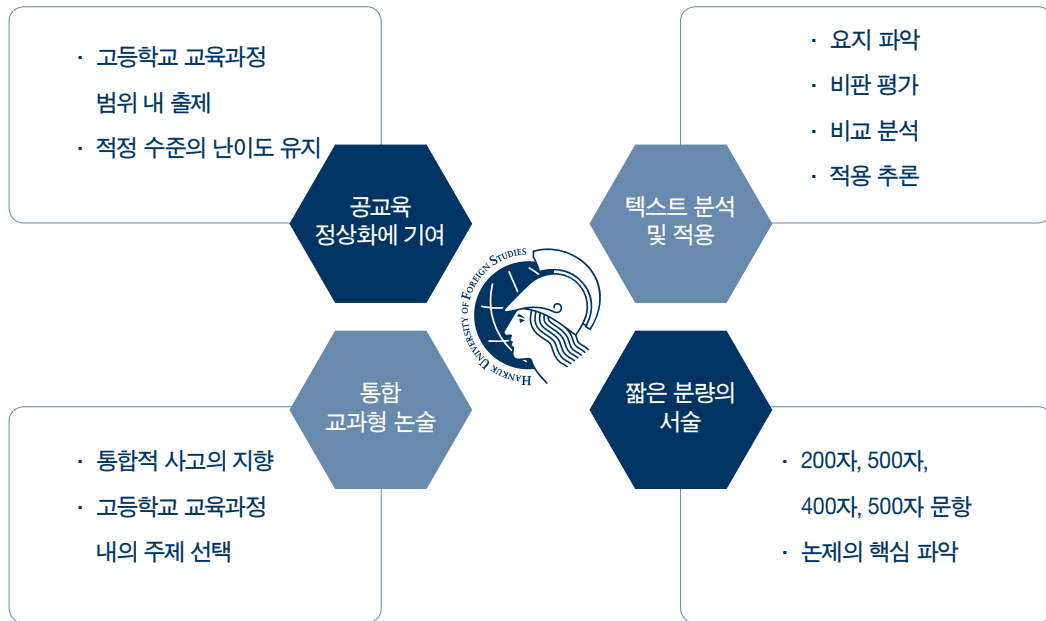
비교내신은 대상자는 2010년 2월 이전 졸업자,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 졸업자 등이며, 적용 방법은 지원자가 취득한 논술고사 성적을 환산하여 반영한다.





03 논술고사 출제 방향과 논제 유형별 접근 방법

01.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고사 출제 방향



통합논술의 방향 지향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고사 출제 방향은 통합논술을 지향한다. 통합논술은 단순히 암기를 통해 습득된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문제 풀이 방식을 지양한다.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보편적인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이를 현실적 문제 해결에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취한다. 개별적인 지식보다는 지식 간의 관련성을 이끌어내는 능력, 사물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치밀한 분석력,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한다.

이러한 통합논술은 몇 가지의 성격을 지닌다. 먼저 제시문이 다양화되었다는 점이다. 설득적 요소나 설명적인 요소가 담긴 글, 정서를 표현하는 문학 작품 등 다양한 형식의 제시문이 주어진다. 그 분야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분야 등 다양하게 제시된다. 그리고 논제가 세분화된다는 특징도 있다. 여러 제시문을 바탕으로 사실적 사고력과 논리적 추론 능력, 비판적 사고력과 응용력,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복합적 문항이 주어진다. 하나의 논제 안에 여러 개의 해결과제가 주어진다는 의미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고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출제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노력한다. 출제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나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여 사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한다. 제시문을 선정할 때 교과서나 EBS 교재의 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제시문의 특성상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제시문을 선정할 때는 제시문의 핵심 내용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의 기준에 따른다.

영어 제시문, 통계 및 도표 자료 제시

영어 제시문과 통계 및 도표 자료가 주어진다. 영어 제시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토대를 두고 출제한다. 그러나 고차원적 영어 독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다루어지는 어휘나 구문 수준에서 출제되므로 기본에 충실하게 대비하면 된다. 특히 영어 제시문과 관련된 문항은 제시문을 읽고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면 된다. 아울러 통계 및 도표 자료가 주어지기도 한다. 통계 및 도표 자료가 가지는 의미를 다른 제시문과 연관지어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역량을 평가한다.

사고 과정 중심의 논제 출제

한국외국어대학교 논술고사는 단편적 결과만을 서술하는 유형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 과정과 타당한 근거를 아울러 밝히는 과정 중심의 문제 유형으로 출제된다. 이는 수험생 스스로 주어진 조건과 상황을 분석하고 순차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목적에 기인한다.



02. 논제 유형별 접근 방법

요지 파악형

요지 파악형 논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문항이다. 제시문에서 논의하고 있는 핵심 논제를 파악하거나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도록 하는 유형이다.

논술 문항에서 요구하는 요약을 위해서는 제시문의 이해가 우선이다. 제시문의 요약은 다양한 형식으로 요구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독립적인 요약, 상관된 제시문을 연계한 요약 등이 있다. 연계 요약에서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복수의 제시문을 연관 지을 수 있는 접속어나 연결 어구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야 제한된 분량 내에서도 제시문들을 자연스럽게 연관시키고 효율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약을 요구하는 문항들은 대부분 글자 수의 제한을 둔다. 요약의 핵심은 최소한의 어휘를 사용하여 핵심적인 논제를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자 내외로 두 제시문을 요약하려면 각각의 제시문에 대한 주제를 파악한 후 핵심어를 추출하고 이를 간결한 문장으로 연결시켜 표현해야만 한다. 핵심어는 보통 제시문 속에 나타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우회적인 표현이나 예시를 통하여 주제를 암시하는 제시문이 주어질 수도 있는 만큼 적절한 어휘를 새롭게 찾아야 할 때가 있다.

영어로 주어진 제시문을 요약할 때 제시문에 핵심어가 나타난다면 이를 우리말 어휘로 바꿔 주는 게 좋다. 영어 핵심어에 대한 적절한 우리말 표현이 없는 경우, 핵심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유연하게 우리말 표현을 서술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영어로 핵심어를 찾았지만 이를 우리말로 옮기는데 그 본래의 의미가 변형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우리말 어휘를 사용하되 영어를 괄호 속에 병기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제시문의 요약을 요구하는 문항이 주어졌을 때 범하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는 제시문의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비록 제시문의 문장이 요지를 적절히 표현하고 있을지라도 이를 그대로 옮긴다면 독창성이 발휘된 좋은 요약이라고 볼 수 없으며 성의 없는 요약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적절하게 다른 표현으로 바꿔 쓰기를 한다거나 제시문에 사용된 다른 핵심어 등과 연결하여 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다.

비판 평가형

제시문을 독해할 수 있으면 그 논지에 대한 독자의 창의적인 사고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주어진 논지에 호응할 수도 있지만 그 논지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도 있다. 비판 평가형 논제의 논술 문항은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글을 통해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서로 상반된 입장의 복수의 제시문이 주어지고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게 하여 상대방 의견을 비판하게 하는 경우,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을 충분히 대입하여 논술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상반된 의견 중에 하나를 지정하여 한쪽 입장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판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비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의 반대자라면 내 입장에 대해 어떤 논리를 적용하여 '나'를 비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연습하는 것도 이런 논술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특정한 입장의 효과적인 비판을 위해서는 그 입장의 장단점 분석과 예시를 통한 자기주장의 옹호가 빈번히 사용되고 또 이 방법이 효과적이기도 하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그 장단점이나 예시를 답안에 포함시킬 때, 제시문에 이미 거론된 것들만 반복해서 언급한다거나 지나치게 판에 박힌 사회현상만을 언급한다면 식상한 글이 될 수 있다. 좀 더 창의적인 장단점의 분석과 참신한 예시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회현상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된 글을 읽거나 토론을 통해 논리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비교 분석형

비교 분석형 논제는 논술고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유형이다. 비교 분석형 논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제는 자료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제나 제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우선 논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자료를 꼼꼼하고 세밀하게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논제의 핵심을 벗어나 엉뚱한 방향으로 비교나 분석이 행해지기 쉽다. 전체 자료를 읽고 공통 논제를 찾아냈다면 그 논제에 맞추어 각각의 주장과 그 주장의 근거를 요약,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논제가 파악됐다면, 그 다음으로 비교 분석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특정한 관점이 문제에서 주어진 경우라면 이에 맞추어 비교 분석을 하면 되겠지만, 특정한 관점 제시 없이 단지 두 자료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만을 요구한다면 논제에 적합한 기준이나 준거를 스스로 찾아야 한다. 이 때 무분별하게 여러 기준을 나열하기보다는 몇 가지 특징적인 비교 분석 기준을 제시하되,



글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핵심 쟁점으로부터 세부적 쟁점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해진 기준 하에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구조화하여 체계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두 대상을 비교하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조의 의미도 포함하므로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글을 전개함에 있어 소주제별, 항목별로 구분하여 개념상 같은 층위에서 건주어야만 효과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비교는 일반적으로 주제, 주장 및 근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일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주장을 비교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주장이 같더라도 그 이유나 근거가 어떻게 다른지를 묻기 때문에 자료 가운데 적합한 논거를 찾아내 기술해야만 할 것이다.

적용 추론형

적용 추론형 논제가 통계나 도표 자료와 결합하여 출제되는 경우 이는 합격과 불합격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용 추론이란 특정 지문을 활용해 주장하는 규칙이나 원리를 적용하여 새로운 사실이나 주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미 안 것을 토대로 하여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도출해내는 것이다.

이 유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주어진 명제 조건을 확인하고, 적용의 내용과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 그래야만 지문에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단계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며, 질문에 이미 절반의 답이 들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문제를 여러 번 읽어 그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한다. 즉, 무엇을 어디에 적용하여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숙지하고 단계적으로 답안을 서술해 가야 한다.

적용 추론 유형은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의 방향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묻고 있는 사항의 개념을 모르면 답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쉽다. 그러므로 자료의 단순 이해보다는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을 발휘하여 단계적, 논리적 서술에 무게 중심을 두고 명확한 언어로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도표나 그래프, 또는 이들이 포함된 지문과 연관하여 수치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 때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꼼꼼히 이해하고, 문제의 맥락 속에서 지문과 도표를 잘 연관시키면 그에 적합한 해석과 추론이 가능하다.



외대를 닮았다 세계를 닮았다

통상과 외교를 넘나드는 융합마인드로
통상사관학교 LT(Language & Trade)학부를 이끄는
김현중 교수의 창의적 사고와 글로벌 감각이
바로 한국외대가 키우는 인재의 미래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는 국제화 1위 대학을 넘어
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세계를 담겠습니다.

From Korea To Global



김현중 교수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전 삼성전자 해외법무 사장
제21대 유엔(UN)대사
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장관급, 한·미 FTA 총괄)
전 세계무역기구(WTO) 수석변호사
변호사(미국 뉴욕주)

2016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2015년 9월 9일(수) ~ 9월 12일(토)

<http://adm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국외대의 새로운 융·복합 교육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인재로 성장하라!

글로벌 외교·통상 분야의
상위 0.1% 인재 배출

외교사관학교 LD학부
통상사관학교 LT학부

서울캠퍼스의 새로운 변화 -
학사조직 개편을 통한 경쟁력 강화

프랑스어학부
중국어교육과

Be a Global Leader
in the Information Society!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인류의 미래를
더욱 풍요롭게 할 바이오 분야
핵심인재 양성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서울캠퍼스

■ LD학부 & LT학부

세계 최고 수준의 언어 구사력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외교·통상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

■ LD(Language&Diplomacy)학부

국립외교원 진출 인재 양성

■ LT(Language & Trade)학부

통상직 고위 공무원 인재 양성

서울캠퍼스

■ 프랑스어학부(개편)

프랑스응용어문학전공, FATI전공, 프랑스·EU전공의
특성화된 전공 개설

■ 중국어교육과(신설)

'G2' 중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중FTA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국어 교육 수요 대응

글로벌캠퍼스

■ Global Business & Technology학부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인재 육성을 위해 탁월한
영어 커뮤니케이션 능력, 실무적용 경영학 지식, IT분야의
기술적 역량을 겸비한 국제 인재 양성의 산실

G 창의적이고 스마트한 사업가형 글로벌 인재

B 스마트 정보화 시대를 이끌 기술과 경영마인드를 가진 융합형 CEO

T 영어에 능통한 글로벌 IT 리더

글로벌캠퍼스

■ 바이오메디컬공학부

의료영상시스템 개발 및 의료영상 분석을 위한 알고리즘의 개발,
U-Health Care 시스템 구축, 의료용 로봇 및
Nano-Technology를 활용한 임상병리기기 등을 개발하는
의생명공학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시모집 원서접수 / 2015.9.9(수)~9.12(토)]

서울캠퍼스 입학관리팀 / 02)2173-2076~8

글로벌캠퍼스 입학관리팀 / 031)330-4299, 4399

입학사정관실 / 02)2173-2083~9

입학안내 홈페이지 <http://adms.hufs.ac.kr>

2016 한국외대 논술 가이드북

2016학년도 모의논술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2015학년도 모의논술





04 2016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시험

논 술 고 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1

(가)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
저 왕궁(王宮)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 집 돼지 같은 주인 년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한번 정정당당하게
불잡혀 간 소설가를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越南)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20원을 받으려 세 번씩 네 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중요하고 있는가

[중략]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절정(絶頂) 위에는 서 있지
 않고 암만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하략]

김수영, 『어느 날 고궁(古宮)을 나오면서』

(나)

열두 살은 아직도 아이의 단순함에 지배되기 쉬운 나이지만, 그리고 아직은
 생생한 낮의 기억들이 은근히 의식의 굴절과 마비를 강요하고 있었지만 나는
 아무래도 그 새로운 환경과 질서에 그대로 편입될 수는 없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러기에는 그때껏 내가 길들어 온 원리 — 어른들 식으로 말하면 합리와 자유
 — 에 너무도 그것들이 어긋나기 때문이었다. [중략] 하지만 싸운다는 것도 실은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먼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그러했고, 누구와 싸워야
 할지가 그러했고, 무엇을 놓고 어떻게 싸워야 할지가 그러했다. 뚜렷한 것은 다만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뿐 — 다시 한 번 어른들 식으로 표현한다면, 불합리와
 폭력에 기초한 어떤 거대한 불의가 존재한다는 확신뿐 —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대응은 그때의 내게는 아직 무리였다.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제시문 2

Let us do something, while we have the chance! It is not every day that we are needed. Not indeed that we personally are needed. Others would meet the case equally well, if not better. To all mankind they were addressed, those cries for help still ringing in our ears! But at this place, at this moment of time, all mankind is us, whether we like it or not. Let us make the most of it, before it is too late! Let us represent worthily for one the foul brood to which a cruel fate consigned* us! What do you say? It is true that when with folded arms we weigh the pros and cons we are no less a credit to our species. The tiger bounds to the help of his congeners* without the least reflection, or else he slinks* away into the depths of the thickets*. But that is not the question. What are we doing here, that is the question. And we are blessed in this, that we happen to know the answer.

* consign: 위임하다, 할당하다

* congener: 동종의 동식물

* thicket: 덤불

* slink: 살며시 도망치다

Samuel Beckett, *Waiting for Godot*

문제 1

〈제시문 1〉 (가)와 (나)의 공통된 주제 의식과 〈제시문 2〉의 주제 의식을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제시문 2〉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분류하고, 〈제시문 2〉 화자가 취하는 주된 대응 방식을 근거로 〈제시문 1〉 (가)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시문 3

케플러는 행성이 원이나 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궤도를 따라 돈다는 생각을 버림으로써 돌파구를 열 수 있었다. 코페르니쿠스는 한결같이 원 궤도를 고집했지만 케플러는 그 점이 문제의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케플러가 지적한 코페르니쿠스의 잘못된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성들은 정확한 원 궤도를 따라 돈다. 둘째, 행성들은 일정한 속도로 돈다. 셋째, 태양은 이들 원 궤도의 중심에 있다.

코페르니쿠스는 위의 세 가정에 지나치게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화성과 다른 행성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 그러나 케플러는 종래의 선입견과 가정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행성들의 운동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브라헤의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태양계 모델을 구축했다. [중략]

케플러 이전에는 어째서 행성들의 궤도가 타원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 중 하나는 원운동을 신성하고 완벽한 운동이라고 생각했던 탓에 천문학자들이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대부분의 행성 궤도가 원에 가까운 타원형이어서 면밀히 조사하지 않으면 원 궤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케플러의 타원 궤도는 관측의 결과와 잘 일치했으며,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의 결론은 과학과 과학적 방법, 즉 관측과 가설 그리고 수학을 결합하여 얻어 낸 승리였다.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B형』



제시문 4

귀납은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개별적인 사실들로부터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검증되면 일반적인 법칙으로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법칙을 토대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이다. 즉 귀납의 원리는 어떤 일정한 형식의 연속이나 공존이 이제까지 자주 반복되었다면 같은 조건에서는 언제나 그런 연속이나 공존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귀납이 정말로 믿을 만한 지식 획득의 방법일까? 영국의 철학자 러셀은 귀납적 방법의 난점을 간단한 일화를 통해 지적하였다. 닭 주인이 닭에게 매일 오전 9시에 모이를 주자 닭은 오랜 관찰에 근거한 귀납 추론을 통해 '주인은 언제나 오전 9시에 모이를 준다.'라는 법칙을 발견한다. 그리고 주인집에 사위가 찾아온 날 오전 9시에 주인이 들어오자 닭은 그 법칙에 근거해서 '오늘도 주인은 모이를 준다.'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주인은 모이를 주는 대신 사위를 위해 닭의 목을 비틀어 버린다. [중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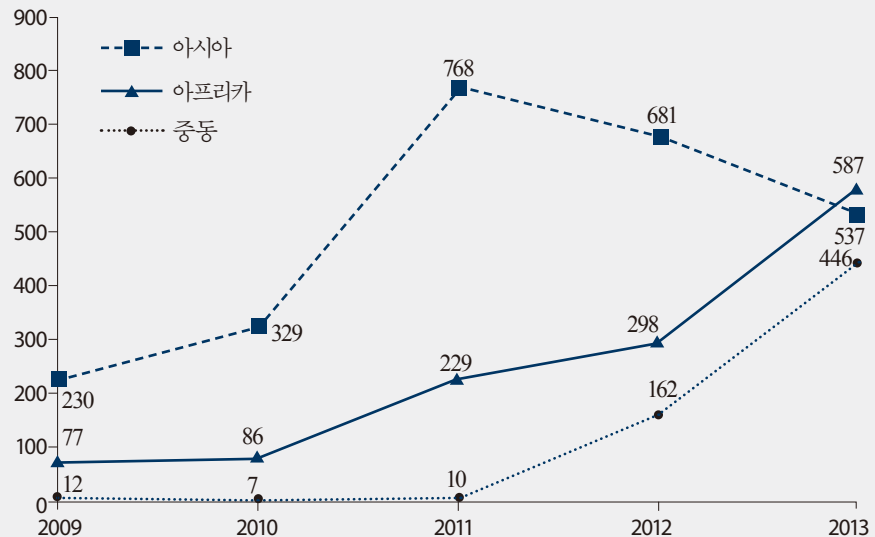
귀납의 원리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 이전 시대의 철학자 흄의 주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중략] 흄에 따르면 지금까지 관찰해 온 것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아무런 단서도 제공하지 않는다. 물론 똑같은 방식의 일이 계속 일어날 수도 있다. [중략] 그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사실을 믿을 만한 정당화가 전혀 없다. 흄에 따르면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 정신의 습관일 뿐이다. 곧 과학을 특별하게 만드는 귀납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정당화를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껏해야 우리 인간이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심리적인 설명을 내놓을 수 있을 뿐이다.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B형』

자료 1

<그림 1> 한국으로의 권역별 난민 신청자 추이

(단위 : 명)



출처 : 2009~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대한민국 법무부)

<표 1> 한국 정부가 승인한 권역별 난민 인정자 추이

(단위 : 명)

연도 \ 권역	2009년	2010	2011	2012	2013
아시아	59	28	28	37	38
아프리카	11	19	25	19	17
중동	4	6	0	6	8
전체 인정자	74	47	42	60	57

출처 : 2009~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대한민국 법무부)

문제 3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예측 오류의 발생가능성, 획득한 지식의 신뢰성, 지식획득 방법의 정당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제시문 4>의 예측에 관한 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그림 1>에서 찾아 그 이유를 밝히고, 이와 더불어 <그림 1>과 <표 1>을 바탕으로 2009년과 2013년의 권역별 자료를 비교하여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05 2016학년도 모의논술 출제 의도 및 해설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시험

출제 의도

2016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논술고사에서는 본교 논술 출제 원칙을 충실히 지키고자 하였다.

첫째, 한국외대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이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과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통합교과형 문제를 출제하였다. 인문학적 요소와 사회과학적 요소의 접합이 한국외대 논술의 X축이라면 그에 조응하는 Y축이라 할 수 있는 한국외대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3개의 키워드 -즉 국제, 문화, 언어-도 제시문과 자료에서 충분히 드러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모의논술에서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한국의 젊은이라면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할 국제적인 이슈를 Part 2의 <자료 1>에서 다루었다. 또한 그간 언어학, 철학 영역에 다소 집중했던 기존의 출제 경향에 대한 성찰을 통해 문학, 과학사, 철학/논리학, 사회과학 영역을 보다 폭넓게 아우르는 제시문과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출제 영역의 학문적 균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제시문 5개 중 3개 (제시문 1, 3, 4)를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수능 교재에서 출제하였다. 고교 교과과정 내에서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평이한 수준의 지문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학습 부담을 덜고 공교육 정상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였다.

Part 1에서는 문학에 나타난 인간 실존의 문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대처방식을 핵심 논제로 하여 우리말 시와 소설 제시문과 영어 희곡 제시문으로 문제를 구성했다. [문제 1]은 두 제시문의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문제 2]는 <제시문 2>의 관점에서 <제시문 1>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Part 1에서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독해의 결과를 실존적 존재이자 구체적인 사회적 행위자로서 일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 대처 방식에 투사하여 사고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제시문 2>에는 영어 제시문을 사용하였다. 이는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지역이나 국가라는 좁은 틀을 벗어나 전지구화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외국어 실력, 특히 영어 실력이 필수적이라는 한국외대의 교육정신 때문이다. 영어 제시문은 어휘나 문장의 난이도 측면에서 현재 고교 교과과정의 영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글이고, 몇몇 어려운 단어는 우리말 뜻을 제공하였으므로 의미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Part 2는 과학사, 철학/논리학, 사회과학의 영역을 아우르는 2개의 제시문과 1개의 자료로 구성했다. [문제 3]에서는 지식 생산과 관련된 철학자들의 주장이 담긴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읽고, 지식이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지식 획득의 과정과 방법의 정당성 및 예측 가능성에 대해 비교 분석하도록 하였다. [문제 4]는 <자료 1>에서 현재 국제적인 이슈로 떠오른 난민 문제와 관련된 통계표와 그래프를 제시하고, <제시문 3>의 관점을 국제사회의 현안에 적용해 추론해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자료출전

이번 모의논술에 활용된 Part 1의 우리말과 영어 제시문은 한국과 아일랜드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에서 발췌했으며, Part 2의 제시문과 자료는 EBS 수능 교재 및 정부 부처의 공식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모의논술고사에 활용된 제시문과 자료의 출처는 아래와 같다.

<제시문 1> 출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제시문 2> 출처 : Samuel Beckett, *Waiting for Godot*

<제시문 3> 출처 :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B형』 72쪽

<제시문 4> 출처 :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B형』 279-280쪽

<자료 1> 출처 : 2009-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대한민국 법무부)



각 자료 요지

〈제시문 1〉 〈제시문 1〉의 화자는 실존 상황에서의 부조리를 인지하고 있으나 어찌할 바를 모르거나 회피한다. 곧 상황 인식과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지극히 소극적이다.

〈제시문 2〉 〈제시문 2〉의 화자는 상황에 대응하는 몇 가지 유형을 제시한다. 그는 어떤 상황이 자신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회피하지 않고 자신이 인식한 바를 행동으로 옮김으로써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제시문 3〉 〈제시문 3〉은 지식획득 과정을 기존 지식(가정)의 부정-새로운 가정 제시-오류의 수정-예측 가능성으로 설명한다. 검증 과정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신뢰할 만하며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고 본다.

〈제시문 4〉 〈제시문 4〉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획득한 개별적 사실로부터 법칙을 추론하는 귀납적 일반화는 예외 사항이 발생할 경우 무력화되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자료 1〉 〈그림 1〉은 한국으로의 권역별 난민 신청자 추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고, 〈표 1〉은 한국 정부가 승인한 권역별 난민 인정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두 자료는 법무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변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내용적 측면

- ①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language studies)를 내용 요소로 반영하였다.
- ②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통합논술 교육의 목표인 1.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2.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3.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4. 올바른 가치관 정립, 5.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6.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시문과 자료를 선정하였다.

- ③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④ 선행학습 방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등학교 교과서와 EBS 수능교재를 적극 활용하였다.
- ⑤ 문학, 비문학 지문을 고루 활용하되, 인간 실존의 문제에서 지식 생산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의 지점들을 도출할 수 있는 제시문을 활용하였다.
- ⑥ 사회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해 보려는 사회과학적 마인드와 비판적 안목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와 문제를 제시하였다.
- ⑦ 기본적인 학습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앞의 두 문제에서는 요지 파악과 비판 평가를, 뒤의 두 문제에서는 비교 분석 및 적용 추론을 하도록 하였다.

형식적 측면

- ① Part 1은 우리말 제시문 두 개와 영어 제시문 한 개로 구성하고, Part 2는 제시문 두 개와 자료 한 개로 지문을 구성하였다.
- ② 1번 문항에서는 핵심어(key word)가 아닌 요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 ③ 2번 문항은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로서,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내용을 비판하도록 하였다.
- ④ 3번 문항에서는 <제시문 3>과 <제시문 4>의 논리적, 방법론적 차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 ⑤ 4번 문항은 <제시문 4>의 관점을 <자료 1>에 적용하여 어떠한 경향성을 추론해 낼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06 2016학년도 모의논술 출제 및 채점 기준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시험

Part 1

〈제시문 1〉 출처 : 김수영, 『어느 날 고궁(古宮)을 나오면서』, 이문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제시문 2〉 출처 : Samuel Beckett, *Waiting for Godot*

〈제시문 1〉의 우리말 번역

기회가 왔으니 그동안에 무엇이든 하자. 우리 같은 놈들을 필요로 한다는 게 노상 있는 일은 아니거든. 꼭 우리보고 해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놈들이라도 우리만큼은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테고. 우리 귓가에 들려오는 살려달라는 소리는 인간 전체에게 한 말이겠지만, 지금 이 자리 지금 순간엔 우리 둘 뿐이니까 싫건 좋건 그 인간이 우리란 말이야. 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그 기회를 이용해야 해. 불행히도 인간으로 태어난 바에야 이번 한번이라도 의젓하게 그 인간이란 족속의 대표가 돼보잔 말이다. 어때? 하기가 팔짱을 끼고 가부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도 우리 인간 조건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지. 호랑이는 아무 생각도 안하고 제 동족을 구하러 뛰어들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깊은 숲속으로 달아나 버리기도 하지.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인 게지. 우린 다행히도 그 답을 알고 있거든. (사무엘 베케트 『고도를 기다리며』)

문제 1

〈제시문 1〉 (가)와 (나)의 공통된 주제 의식과 〈제시문 2〉의 주제 의식을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요지

〈제시문 1〉 (가)와 (나)의 화자는 당면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소극적이고 방관자적인 태도에서 괴리를 느낀다.

〈제시문 2〉 화자는 현재 처한 문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방관이나 회피 등 소극적 대응 대신 무언가 행동을 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이 인식한 바를 실천할 적기라고 말한다.

평가지침

이 문제는 인간이 처할 수 있는 실존적 상황에서 서로 다른 대응 태도를 보여주는 제시문 화자를 통해 찾을 수 있는 주제 의식을 적절하게 파악하고 기술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200자 내외로 짧게 서술해야 하므로 핵심어를 찾아 이를 간명하고 매끄럽게 서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어느 날 고궁(古宮)을 나오면서』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은 한국의 고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익숙한 작품이고 『고도를 기다리며』 또한 그 수준의 작품이어서 수험생들이 어려움 없이 주제 의식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평가는 주어진 작품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주제 의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둔다. 우리말 제시문과 영어 제시문의 주제 의식을 200자 내외로 짧게 서술해야 하므로 표현력이나 논리적 구성력보다는 대립적인 주제 의식을 적절히 파악하여 제시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A0
	A-
B	B+
	B0
	B-
C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각 제시문의 주제 의식을 적절히 서술하지 못한 경우
D	핵심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였고, 각 제시문의 주제 의식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2**

〈제시문 2〉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분류하고, 〈제시문 2〉 화자가 취하는 주된 대응 방식을 근거로 〈제시문 1〉 (가) 화자의 태도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요지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 논제는 ‘상황 인식과 대응 태도’이다. 〈제시문 1〉 (가)와 (나)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소극적 태도에 괴리를 느낀다. 반면 〈제시문 2〉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관이나 회피 대신 행동을 취하여 적극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바로 지금이 행동을 취할 적기라고 말한다.

평가지침

이 문제는 비판적 사고를 통해 주어진 제시문의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평가한다.

답안을 적절하게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2〉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분석해야 하는데, 그것은 1) 적기의 대처 행동 2) 고민과 관망으로 일관 3) 즉각적인 대처 행동 4) 상황 회피 등이다. 이것들을 분류하면 적극적 대응 방식과 소극적 대응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화자는 적극적인 대응 방식을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제시문 1〉 (가) 화자가 보이는 반성만 하고 회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해야 한다.

평가는 먼저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수행했는가를 본다. 즉 〈제시문 2〉에 나타난 문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적절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분류하였는가, 〈제시문 2〉 화자가 취하는 대응 방식을 바르게 선택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시문 1〉 (가) 화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였는가가 관건이다. 다음으로는 답안 서술의 정확성과 논리적 구성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형식적 측면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 <제시문 2>에서 발견되는 문제 상황 대응 방식이 모두 분석되고, 이들이 '적극적 대응 방식'과 '소극적 대응 방식'의 두 범주로 분류되어야 함 단, 1)과 2)를 동일한 방식으로 여겨 둘 중 하나만 기술하거나 둘을 통합적으로 기술하여도 정답으로 인정하며, 3)과 4)는 반드시 기술되어야 함
	A0	1) 적시의 행동 대응
		2) 즉각적 (무모하게 혹은 본능적으로) 행동 대응
		3) 고민과 관망으로 일관
		4) 상황 회피
	A-	- <제시문 2> 화자의 태도가 '적극적 대응 방식' 범주에 속하는 반면, <제시문 1> (가) 화자의 태도가 '소극적 대응 방식' 범주에 속함으로써 대립 구도를 이루고 있음이 지적되어야 함 - <제시문 2> 화자의 입장에서 <제시문 1> (가) 화자의 '소극적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어야 함
B	B+	<제시문 2>에서의 문제 상황 대응 방식의 분석과 범주화가 명확히 이루어졌으나, <제시문 2> 화자와 <제시문 1> (가) 화자의 태도의 대립 관계가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
	B0	
	B-	
C		<제시문 2>에서의 문제 상황 대응 방식의 분석과 범주화가 명확하지 않고, <제시문 2> 화자와 <제시문 1> (가) 화자의 태도의 대립 관계가 명확히 기술되지 않은 경우
D		<제시문 2>에서의 문제 상황 대응 방식의 분석과 범주화가 명확하지 않고 <제시문 2> 화자와 <제시문 1> (가) 화자의 태도의 대립 관계가 명확히 기술되지 않으며, <제시문 1> (가) 화자의 시각이 갖는 문제점을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Part 2

〈제시문 3〉 출처 : 『EBS 수능완성 국어영역 B형』 72쪽

〈제시문 4〉 출처 :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B형』 279~280쪽

〈자료 1〉 출처 : 2009~2013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대한민국 법무부)

〈제시문 3〉, 〈제시문 4〉, 〈자료 1〉의 요지

〈제시문 3〉 〈제시문 3〉은 지식획득 과정을 기존 지식(가정)의 부정-새로운 가정 제시-오류의 수정-예측 가능성으로 설명한다. 검증 과정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신뢰할 만하며 미래에 대한 예측도 가능하다고 본다.

〈제시문 4〉 〈제시문 4〉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획득한 개별적 사실로부터 법칙을 추론하는 귀납적 일반화는 예외 사항이 발생할 경우 무력화되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자료 1〉 〈그림 1〉은 한국으로의 권역별 난민 신청자 추이를 시각적으로 제시하였고, 〈표 1〉은 한국 정부가 승인한 권역별 난민 인정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두 자료는 법무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변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문제 3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예측 오류의 발생가능성, 획득한 지식의 신뢰성, 지식획득 방법의 정당성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평가지침

이 문제는 지식획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두 제시문을 이해하고 각각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비교·분석하여 서술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지식획득 과정의 정당화를 분석하여 항목 간 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문제의 초점은 지식 획득 과정, 지식의 획득 방법, 정당성과 예측의 흐름을 읽어내고 이 과정에서 오류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의 가정을 무조건 신뢰하는 태도보다는 검증의 과정을 거쳐 지식의 획득을 확인하는 절차가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특수한 개별적인 사실들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고 해서 항상 변함없을 것으로 인식하는 데서 오류가 발생된다는 점을 포함해야 한다.

	〈제시문 3〉	〈제시문 4〉
지식 획득 과정	종래의 선입견과 가정에 얽매이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면밀한 관찰과 조사를 거쳐 관측, 가설 및 수학을 결합함(또는 결합하여 모델을 구축함)	관찰과 실험을 통해 얻은 개별 사실로부터 가설을 수립하고, 검증 한 후 일반적인 법칙을 추출함(귀납의 원리)
1) 예측 오류의 발생가능성	관찰된 사실들로부터 면밀한 조사를 거치면 법칙을 만들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예측 오류의 가능성이 낮음	관찰된 사실들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할 뿐 미래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못하므로 예측 오류의 가능성이 높음
2) 획득 지식의 신뢰성	케플러가 획득한 타원 궤도에 관한 지식은 관측의 결과와도 잘 일치했고,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신뢰성이 높음	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조건이라 여겨지는 상황하에서도 주인이 또 모이를 줄 것이라 여겨지는 기대(관찰을 통한 획득 지식)는 빗나갈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짐
3) 지식 획득 방법의 정당성	케플러가 브라헤의 관측 자료로부터 구축한 타원 궤도 모델은 관측의 결과 즉 실제 현상과 일치했고, 태양계 행성의 운동을 매우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닭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관찰과 실험을 통한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법칙을 추론하는 귀납적 방법은 지식획득 방법으로 그 자체가 정당화될 수 없음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① 예측 오류의 발생 가능성
	A0	② 획득한 지식의 신뢰성
	A-	③ 지식 획득 방법의 정당성에 대한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제시문 3〉과 〈제시문 4〉를 대비시켜 ①~③ 항목별로 올바르게 서술하여야 함
B	B+	위의 ①~③ 항목 중 하나를 누락하고 비교·분석한 경우 세부 항목별 대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차등점수를 부여함
	B0	
	B-	
C		비교·분석의 형식을 갖추어 항목 간 연결이 제시문과 최소한의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 경우
D		비교·분석의 형식을 갖추었으나 항목 간 연결이 제시문과 논리적 연관성을 거의 갖지 않는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4

〈제시문 4〉의 예측에 관한 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을 〈그림 1〉에서 찾아 그 이유를 밝히고, 이와 더불어 〈그림 1〉과 〈표 1〉을 바탕으로 2009년과 2013년의 권역별 자료를 비교하여 한국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에 변화가 있는지 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평가지침

이 문제는 권역별 난민 신청자 수의 변화 추이를 파악하여 관찰된 사실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흠의 주장을 정당화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그래프 해독 능력 및 논증력을 측정하고자 했다. 또한 난민 신청자와 인정자에 관한 통계 자료를 결합하여 난민을 인정하는 비율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인정률]를 만들어내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 정부가 난민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를 설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학생의 추론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따라서 주된 평가 영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흠의 주장을 정확하게 기술했는지 그리고 〈그림 1〉에서 이전 연도까지 관찰된 자료로부터 다음해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찾아 정확하게 기술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둘째, 난민 신청자 대비 난민 인정자의 비율[인정률]을 사용하여 정부의 난민 인정태도를 정확하게 추론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셋째, 정확한 내용을 찾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정확하게 표현했는지도 평가할 것이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아래의 사항들이 반드시 지적되어야 함 1) 흠의 핵심적인 주장이 '관찰된 사실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혀야 함
A	2) 2011년까지의 관찰치(자료)를 가지고 2012년 아시아 및 중동 권역에서 온 난민 신청자를 예측할 수 없음을 밝혀야 함. (2009~2013년까지의 불규칙성에 근거하여 예측 불가능성을 주장해도 무방함)
A0	3) 문제의 조건에 따라 2009년과 2013년의 자료를 비교하여야 함
A-	4) 난민 신청자 대비 난민 인정자의 비율[인정률]을 사용해야 함 5) 모든 권역에서 인정률이 낮아진다는 사실로부터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가 인색해졌음을 밝혀야 함
	이 다섯 가지 사항을 모두 기술했어도 논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 A0 또는 A-로 판정함
B+	자료를 활용하여 흠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내용과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 변화를 기술한 부분이 모두 있으나, 자료 해석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등 위 필수 사항들 중 1~2 가지가 불완전한 경우
B	B0
B-	논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 B0 또는 B-로 판정함
C	흠의 주장과 정부의 태도 변화는 표현했으나 자료를 전혀 활용하지 않은 경우
D	흠에 주장에 대한 정당화나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 변화 둘 중 하나만 기술하고 자료를 활용하지도 않은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07 2016학년도 모의논술 예시답안

2016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시험

문제 1

(200자 내외)

〈제시문 1〉과 〈제시문 2〉의 공통 논제는 ‘상황 인식과 대응 태도’이다. 〈제시문 1〉 (가)와 (나)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나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자신의 소극적 태도에 괴리를 느낀다. 반면 〈제시문 2〉의 화자는 당면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방관이나 회피 대신 행동을 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바로 지금이 행동을 취할 적기라고 말한다.

문제 2

(500자 내외)

〈제시문 2〉에서 언급된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은 1) 적기 행동 대처 2) 고민과 관망으로 일관 3) 즉각 (무모하게 혹은 본능적으로) 행동 대처 4) 상황 회피 등이다. 이중 1)과 3)은 적극적 대응 방식, 2)와 4)는 소극적 대응 방식으로 분류된다. 〈제시문 2〉의 화자는 2)와 4)의 소극적 대응 방식 대신 1)과 3)에 해당하는 적극적 대응 방식을 지지하는데, 특히 1)의 적기 행동 대처를 주장한다.

〈제시문 1〉 (가) 화자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도 고민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결과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해 방관자적 혹은 회피적 태도를 취한다. 〈제시문 2〉 화자의 적극적인 주된 대응 방식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것은 문제 상황에 대해 고민만 하거나 회피하는 소극적 대응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문제 3

(400자 내외)

예측 오류의 발생가능성 측면에서 〈제시문 3〉은 사실을 검증한 법칙이며 예측 오류의 가능성이 낮다. 반면, 〈제시문 4〉에서 관찰 자료는 미래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못하므로 이에 근거한 예측은 우리의 기대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여 오류 가능성이 높다. 획득 지식의 신뢰성 측면에서 〈제시문 3〉은 획득한 지식이 관측의 결과와도 잘 일치했고 예측할 수 있는 신뢰성을 확보한 반면, 〈제시문 4〉는 관찰을 통해 획득된 지식은 빗나갈 수 있어 신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지식 획득 방법의 정당성 측면에서 볼 때 〈제시문 3〉은 케플러가 구축한 모델은 관측의 결과 즉 실제 현상과 일치하여 그 정당성이 인정되나, 〈제시문 4〉에서 개별적 사실로부터 일반법칙을 추론하는 귀납적 방법은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지식획득 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문제 4

(500자 내외)

〈그림 1〉에서 2011년까지의 자료에 근거하여 2012년 권역별 난민 신청자를 예측한다면, 아시아 출신의 신청자 수는 증가하고 중동 출신의 신청자 수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아시아는 감소했고 중동은 상승했다. 이러한 점에서 관찰된 사실로부터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없다는 흐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09년 자료와 2013년 자료를 비교하여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 태도의 변화를 살펴보자. 여기서 '난민 인정 태도의 변화'란 난민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입장의 변화를 말하는데, 이는 난민 신청자 대비 난민 인정자의 비율, 즉 난민 인정률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 정부의 2009년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권역별 난민 인정률은 각각 $\frac{59}{230}$, $\frac{11}{77}$, $\frac{4}{12}$ 이었다. 그러나 2013년에는 각각 $\frac{38}{537}$, $\frac{17}{587}$, $\frac{8}{446}$ 으로 바뀌었다. 이처럼 2013년 모든 권역에 대한 난민 인정률이 낮아졌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난민 인정이 상당히 인색해졌음을 알 수 있다.



08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문제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

논 술 고 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According to Carlo Ginzburg, the potential of human beings to experience authentic feelings of pity and guilt is greatly determined by the distance of human beings to the particular object, namely, the distance in actual historical time, the distance in physical space, and the distance in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subjects. He introduces Aristotle's famous remark on this topic: "The persons men pity are those whom they know. Men also pity those who resemble them in age, character, habit, and position." He also examines how the moral implications of distance have been explored in literature. Such effects are clearly shown in passages like "We agree that perhaps distance in space weakened all feelings and all sorts of guilty conscience, even of crime" (Diderot, *Conversation of a Father with his Children*), and "In India the English are killing thousands of men as good as we are; and at this moment the most charming woman is there being burnt, but you have had coffee for breakfast all the same?" (Balzac, *Father Goriot*).

Matthew Wylie, *Moral Crime and Moral Punishment*

자료 2

“무엇 때문에 내가 신이 만든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건지 이제부터 너에게 설명해 줄게. 내게 필요한 것은 너에게 나의 관점을 제시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는 인류 전반의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차라리 어린아이들의 고통만을 다루는 편이 낫겠어. 이렇게 하면 내 논의의 규모가 열 배 정도는 줄어들겠지만 말이야. (...) 너는 이게 이해가 되니, 아직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제대로 짐작할 수 없는 어린 존재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다고 치자. 그 아이가 어둡고 추운 더러운 곳에서 조막만한 주먹으로 자신의 찢어진 가슴을 치면서 ‘하느님 아버지’를 향해 자기를 보호해 달라며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온순한 피눈물을 흘린다면 — 이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너는 이해하겠니. (...) 내 말을 들어봐, 나는 보다 더 명확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어린아이들만을 예로 들었던 거야. 지표면에서부터 중심부에까지 이 땅을 흠뻑 적시고 있는 인류의 나머지 눈물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 일부러 내 주제를 축소한 거야. (...) 골백번이나 반복하건대 — 문제는 수도 없이 많지만, 내가 그저 아이들만을 예로 들었던 것은 이로써 내가 말해야 할 것이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해지기 때문이지.” (...)

“대답을 해봐, 그러니까 만일 내가 결국에 가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그들에게 평화와 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네 손으로 직접 인류의 운명의 건물을 지어 올리는데, 하지만 이 일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겨우 단 하나의 조막만한 창조물을, 뭐 예컨대 작은 주먹으로 가슴을 찢던 그 어린애와 같은 창조물을 괴롭히지 않으면 안되게 생겼고, 그 아이의 고통어린 눈물 위에 그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너라면 이런 조건에서 건축가가 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을까? 아니, 동의하지 않을거야. (...)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서둘러 입장권을 반납하려는 거야. 나는 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에게 그 입장권을 극히 정중하게 반납하는 거야.”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2〉에 제시된 입장에 근거해서 〈자료 1〉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II. <자료 3~5>는 제시된 범주, 판단, 예측을 성립시키는 '전제들'을 본문 중에 포함하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3

1789년 프랑스대혁명 과정에서 부르주아 집단은 뚜렷한 공통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이념적 기초는 철학자들과 경제학자들에 의해 정식화된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이었다. 이는 그들의 정치적 지향점이었고, 그 안에는 그들의 이해가 관철될 수 있는 기본적인 골격이 전제되어 있었다. 같은 해에 발표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은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자유롭게 살아가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선언서에는 새로운 질서를 주도한 부르주아의 구상이 요소요소에 자리 잡고 있다. 이 문건은 귀족 특권의 위계적 사회에 반대하는 선언이었지만, 인간 및 시민을 표방하는 신흥 부르주아 세력이 그들 이외의 다른 사회 집단 — 무산계급, 여성 등 — 의 이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완전한 평등주의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이 선언서에서 사유재산은 신성하고 양도할 수 없으며 침범할 수 없는 자연권으로 전제되어 있다. 또한 법 앞에서 평등한 사람에게 출세의 가능성이 재능에 따라 평등하게 열려 있음도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대부분의 부르주아 자유주의자들은 대의제적 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켜 나가는 재산소유자의 과두정치에 기초를 둔 정치체제를 옹호했다. 이런 의미에서 1789년의 고전적·자유주의적 부르주아와 1789년에서 1848년 사이의 자유주의자는 민주주의자라기보다는 시민적 자유를 옹호하고, 납세자와 재산소유자에 의한 통치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다.

Eric Hobsbawm, *The Age of Revolution 1789~1848*

자료 4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 예측,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바람, 믿음, 가식과 같은 심리 상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심리 상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심적 표상 체계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 능력은 유아에게서도 관찰된다.

예를 들어, 셸리가 구슬을 바구니에 넣고, 뚜껑을 덮은 뒤, 자리를 떠났다고 해보자. 셸리가 없는 동안, 앤이 바구니에 있던 구슬을 꺼내 상자로 옮겼다. 실험에 참가한 아동이 이 상황을 영상을 통해 보고 있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아동에게 셸리가 돌아왔을 때 어디에서 구슬을 찾을지를 질문한다. 아동이 셸리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셸리가 구슬의 위치가 바뀐 것을 모른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동에게 보여준 영상에서는 앤의 개입으로 인해 셸리가 믿고 있는 구슬의 위치와 실제 구슬의 위치가 달라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험에 참가한 아동은 실제로 구슬이 상자에 들어있음을 알면서도 셸리가 구슬을 찾기 위해 바구니를 열어볼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Michael Gazzaniga (ed.), *The New Cognitive Neuroscience*



자료 5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영어가 곧 인터넷 언어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상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이 꾸준히 증가했다. 1990년대 중반만 해도 영어 사용 인구가 80퍼센트에 이른다고 보고되던 것이, 2001년 미국인터넷협회 자료에 따르면 45퍼센트 정도로 줄어들면서 인터넷 상에서 영어의 주도적 지위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아래 표는 2010년 초 인터넷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상위 10개 언어를 요약한 것이다. 영어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으나 인터넷 사용자 수로 볼 때 중국어에 조만간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인다.

언어	전체 인터넷 사용자 비율	인터넷 사용자 수 (단위: 백만)	인터넷 언어 성장률 (2000~2009)
영어	27.5	496	252
중국어	22.6	408	1,162
스페인어	7.8	140	669
일본어	5.3	96	104
포르투갈어	4.3	78	924
독일어	4.0	72	161
아랍어	3.3	60	2,298
프랑스어	3.2	57	375
러시아어	2.5	45	1,360
한국어	2.1	37	97
기타 언어	17.4	314	516
총계	100.0	1,802	—

David Crystal, *Internet Linguistics*

문제 3

〈자료 3〉에 제시된 “인간 및 시민” 범주의 전제와 〈자료 4〉의 실험대상 아동에게 기대되는 응답에 깔려있는 전제를 각각 밝히고, 해당 전제가 바뀌었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각각 논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5〉에서 영어가 조만간 인터넷 언어 1위 자리를 중국어에 내줄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를 표에 의거하여 밝히고, 그 예측의 타당성 여부를 〈자료 3〉과 〈자료 4〉에서의 전제의 역할을 고려하여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

논 술 고 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 (Hermann Ebbinghaus)는 원을 통해 인간의 착시 현상을 조명하였다. 주어진 그림은 동일한 크기의 원이라도 주변을 둘러싼 다른 원의 크기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게 감각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게슈탈트 심리학(Gestalt Psychology)에 따르면 인간의 인지과정은 순수 논리나 계산에 의한 추리방식과는 다르다. 인간은 객관적인 논리에 의해서라기보다 주변상황이나 세상사와 같은 사전지식에 근거해 하향식으로(top-down) 사물이나 현상을 수용하여 창의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해결에는 각 요소에 하나씩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독일의 심리학자 볼프강 쾰러(Wolfgang Köhler)는 하향식 사고방식에 결정적 열쇠가 되는 통찰(insight)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한 바 있다. 쾰러는 자신이 설계한 실험에서 철장 안 침팬지의 행동을 관찰했다. 철장 속 천장에는 맛줄로 바나나를 매달아 놓고 바닥에는 몇 개의 상자를 여기저기 흩어놓았다. 침팬지는 바나나를 따기 위해 갖은 애를 써보다가 잠시 행동을 멈추고 상황을 살핀 뒤, 한쪽 구석에 놓인 상자를 보고는 그것들을 옮겨 차례로 쌓아 올린 뒤 결국 바나나를



손에 넣었다. 이 실험 결과를 보면 바나나와 상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개별적인 요소들처럼 보이지만 침팬지는 이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성립시켰다. 쾰러는 이 실험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침팬지가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침팬지는 바로 이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쾰러는 이것을 통찰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급속도로 변모하는 현대사회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대상과 사태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때 통찰력의 부재는 이러한 파편들에 대처하는 사고의 효율성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만다. 개별 사실들이 그럴듯한 즉 유의미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상황 고유의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해결의 열쇠를 찾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외적인 세계의 객관적 사실들에 앞서 이를 조망할 수 있는 사전지식과 경험, 주어진 상황과 목적에 맞는 통찰이야말로 창의적이며 발전적인 결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

Wolfgang Köhler, *Die Aufgabe der Gestaltpsychologie* 외

자료 2

Social stereotypes are often formed initially from specific experiences or from observations of one or more individuals. These specific impressions become a stereotype when this information is then generalized to apply to all members of a group, regardless of circumstances. This creates difficulties when circumstances change but the stereotype does not, or when a stereotype is used as a substitute for gathering accurate information about a person. For example, a friend of mine once reported an experience that his 6-year-old son had at school. The teacher had asked the children to draw a picture of their fathers relaxing. When the teacher saw the boy drawing a picture of a man chopping wood, she said, "No, I said draw him relaxing." Bursting into tears, the 6-year-old exclaimed, "But my daddy does chop wood to relax!" In fact, his father's work involved sitting at a desk all day long. The teacher's stereotype, not the boy's drawing, was the problem. Stereotypes, as top-down mental schemas*, can lead us to prejudge

others—and all schemas carry this risk of distorting reality.

The likelihood that we will recognize such distortions is reduced by a phenomenon called confirmation bias**. Generally, we tend to focus on information that confirms our beliefs and ignore potentially contradictory information. Ironically, the more confident we are in our beliefs, the more likely is the danger of distortion, because we are less likely to look for information that might reveal our errors. Thus, a doctor with 30 years of experience is less likely to recognize when he has made a diagnostic error than a newly-graduated intern—since greater experience instills greater confidence.

* schema : 도식(圖式)

** confirmation bias : 확증편향(確證偏向)

Glassman E. William, *Approaches to Psychology*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1〉의 관점에서 〈자료 2〉가 지적한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3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기대]

(단위: %)

교육목표	〈교사〉			〈학부모〉			〈학생〉		
	초	중	고	초	중	고	초	중	고
기본 지식	39.7	37.3	36.6	54.8	58.1	56.1	49.5	35.2	22.9
도덕성	53.0	54.7	56.9	32.6	30.5	30.8	23.7	20.5	14.5
개성과 창의성	5.9	6.6	3.4	10.4	9.4	9.3	17.7	32.1	42.9
기타	1.4	1.4	3.1	2.2	2.0	3.8	9.1	12.2	19.7

※ 9개 집단별 표본 크기는 동일함.

이은주, 『통계, 학교를 말하다』

자료 4

“선생님 서화는 예(藝)입니까, 법(法)입니까, 도(道)입니까?” / “도(道)다.”

“그럼 서예(書藝)라든가 서법(書法)이란 말은 왜 있습니까?”

“예는 도의 향이며, 법은 도의 옷이다. 도가 없으면 예도 법도 없다.”

“제가 지극하면 도에 이룬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는 도의 향이 아니라 도에 이르는 문이 아니겠습니까?”

“장인(匠人)들이 하는 소리다. 무엇이든 항상 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글씨며 그림을 배우는 일도 먼저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이겠군요?”

“그렇다. 그래서 왕우군(王右軍)은 비인부전(非人不傳)이란 말을 했다. 너도 이제 그 뜻을 알겠느냐?”

이미 육순에 접어들어 늙음의 기색이 완연한 석담 선생은 거기서 문득 밝은 얼굴이 되어 일생을 불안하게 여겨 오던 제자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고죽은 끝내 그의 기대를 채워 주지 않았다.

“먼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제 예닐곱 살 난 학동들에게 붓을 쥐여 자학을 그리게 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만약 글씨에 도가 앞선다면 죽기 전에 붓을 잡을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예를 닦으면서 도가 아우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평생 기예에 머물러 있으면 예능이 되고, 도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예술이 되고, 혼연히 합일되면 예도가 된다.”

“그것은 예가 먼저고 도가 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도를 앞세워 예기(藝氣)를

억압하는 것은 수레를 소 앞에다 묶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석담 문하에 든 직후부터 반생에 이르는 고죽의 항변이기도 했다. 그에 대한 석담 선생의 반응도 날카로웠다. 그를 받아들일 때부터의 불안이 결국 적중하고 만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으리라.

“이놈, 네 부족한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을 애써 채우려 들지는 않고 도리어 요망스러운 말로 얼버무리려 하느냐? 학문은 도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데 너는 경서(經書)에도 뜻이 없었고, 사장(詞章)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오직 붓끝과 손목만 연마하여 선인들의 오묘한 경지를 자못 여실하게 시늉하고 있으니 어찌 천예(賤藝)와 다름이 있겠는가? 그래 놓고도 이제 와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사람의 드높은 정신의 경지를 평하려들다니 뻔뻔스러운 놈.”

* 왕우군(王右軍): 서성(書聖)으로 일컬어지는 중국 진나라의 서예가 왕희지를 말함.

* 비인부전(非人不傳):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

*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 책을 많이 읽고 교양을 쌓으면 몸에서 책의 기운이 풍기고 문자의 향기가 남을 뜻함.

* 사장(詞章): 시가와 문장을 아울러 이르는 말.

이문열, 『금시조』

자료 5

(가) 언어학자들은 세계에 존재하는 많은 문자들 중에서 한글이 남다른 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한다. 이를테면 문자 창제의 과정과 원리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글이 유일하다. 현재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문자는 이미 존재하는 문자를 모방하거나 변형하여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한글 자음의 기본자는 소리 내는 데 관여하는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발음 작용을 본떠 아음(牙音, 어금닛소리), 설음(舌音, 혀소리), 순음(唇音, 입술소리), 치음(齒音, 잇소리), 후음(喉音, 목구멍소리)에 해당하는 글자로 만들었다. 모음은 우주 만물의 기본이 되는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각각 본떠 만들었고, 하늘은 둥글고 [], 땅은 평평하며 [-], 사람은 그 가운데 서 있는 모양[]으로 나타냈다. 이렇게 하여 기본 모음 세 자를 만든 다음, 이들을 결합하거나 획을 더하는 방법으로 모음 열한 자를 만들었다.

(나) 한글의 또 다른 특성은 창제자가 각각의 소리에 대응하여 글자를 만든 후



그것을 조합하여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성을 발휘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를 자음과 모음으로 결합하여 음절을 만들고 하나로 발음하도록 하였다. 통합성은 애민(愛民)이라는 창제자의 철학, 당대의 주류 학문인 성리학과 음양오행 사상까지 창제에 반영한 데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음운학 이론서는 물론이고 몽골, 여진, 일본 등의 문자 관련 자료를 참고하고 종합하여 우리말에 맞는 문자를 만든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출판사>, 고등학교 『국어』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가치관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3〉의 설문조사 결과 전반에 대해 〈자료 5-가〉의 주된 가치에 입각하여 해석한 후, 〈자료 5-나〉의 주제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수 의견 중시의 원칙하에 초·중·고별로 추론해 보시오. (500자 내외, 210점)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I)

논술고사

고사장번호 ()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In Seligman and Maier's experiment, two groups of dogs were placed in harnesses. Each dog in Group 1 was intentionally subjected to pain by being given electric shocks, which the dog could end by pressing a lever. Each dog in Group 2 received electric shocks of identical intensity and duration, but pressing a lever did not stop the shocks. For the dogs in Group 2, the shock was apparently inescapable. While the dogs in Group 1 quickly recovered from the experience, the dogs in Group 2 learned to be helpless and exhibited symptoms similar to chronic clinical depression.

The cause of learned helplessness*, according to Seligman, is the repeated exposure to an uncontrollable event. After many repeated and failed attempts to accomplish something while being in an uncontrollable event, your brain learns that success is beyond your control and that you cannot affect the outcome. Once conditioned to this belief, you give up hope and effort, even when later exposed to a similar event where control is possible. In effect, you've learned to become helpless.

* learned helplessness: 학습된 무기력



자료 2

1963년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로젠탈 교수는 ‘동물 대상 실험을 통해 연구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로젠탈은 실험심리학 전공 학생들에게 “미로 바보”라 이름 붙인 쥐들과 “미로 수재”라 이름 붙인 쥐들을 제공한 뒤, “미로 바보” 쥐들은 학습 효과가 없는 쥐들이지만, “미로 수재” 쥐들은 처음에 보통 쥐와 비슷한 것 같아도 금방 학습 효과를 보이는 똑똑한 쥐들이라고 얘기해 줬다. 사실, 두 종류의 쥐들은 무작위로 선택된 쥐들이었다. 5일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는 놀라웠다. “미로 수재” 쥐들이 실제로 미로 통과 과제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학습 성과를 보인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로젠탈은 “미로 수재” 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미로 수재” 쥐들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다루었는지가 결과의 결정요인임을 발견했다.

이어지는 연구에서 로젠탈은 미국에서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레노어 제이콥슨과 함께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무작위로 한 반에서 20퍼센트 정도의 학생을 뽑았다. 그 학생들의 명단을 교사에게 주면서 ‘지적 능력이나 학업 성취의 향상 가능성이 높은 학생들’이라고 믿게 하였다.

8개월 후 이전과 동일한 지능 검사를 다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명단에 속한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보다 평균 점수가 높게 나왔다. 뿐만 아니라 학교 성적도 크게 향상되었다. 명단에 오른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중요한 요인이었다. 이 연구 결과는 교사가 학생에게 거는 기대가 실제로 학생의 성적 향상에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Robert Tauber, *Self-Fulfilling Prophecy*;

<○○출판사>, 고등학교 『사회·문화』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1〉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료 2〉에 제시된 효과의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3

문학작품이나 우리가 사는 세계를 아무리 개인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론에 ‘오염’되지 않은 채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해석은 이미 그 자체로 이론적인 여러 가정과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이 이론적인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이미 내면화하여 마치 자연스러운 것인 양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특정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란 없다.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는 이론적 가정들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그와 같은 가정들은 분명 존재한다. 문학작품에 행해지는 해석이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와 같은 해석은 결단코 문학, 교육, 언어 및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곧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이 스며든 나머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확신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아울러 명심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일단 비평이론에 익숙해지고 나면,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된다는 점이다. 훈련을 통해 이론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말은 인간의 경험과 온갖 사상 세계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뜻이며, 그렇게 되면 문학작품에 담긴 강렬한 밀도와 다채로운 짜임새, 의미의 미묘한 차이들을 한층 더 음미할 수 있다. 이론을 통해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즐기고 평가하는 능력도 더 향상되는 것이다.

Lois Tyson, *Critical Theory Today*



자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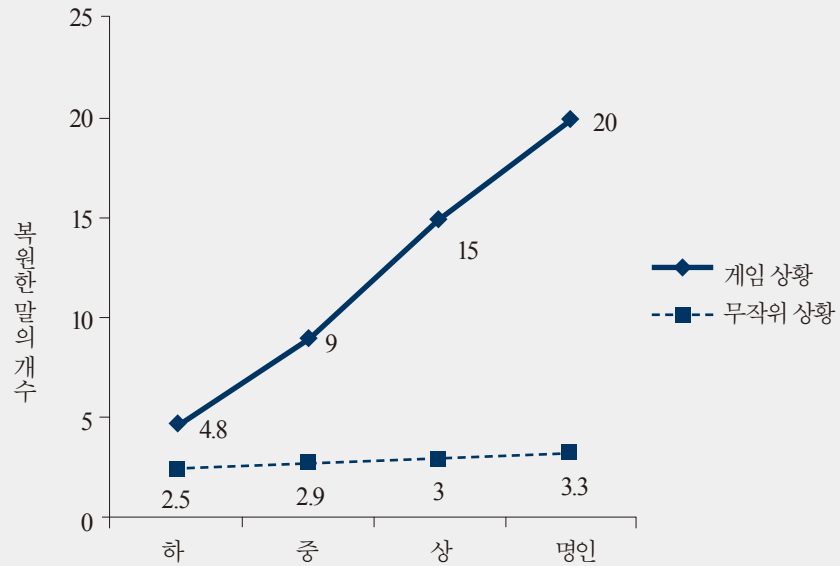
프레임은 인간의 실재를 이해하도록 해주며 때로는 우리가 실재라고 여기는 것을 창조하도록 해주는 심적 구조이다. 즉, 프레임은 우리의 아이디어와 개념을 구조화하고, 사유방식을 형성하며, 심지어 지각 방식과 행동 방식에도 영향을 준다. 문법 연구에서도 프레임 없이 연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널리 퍼져있다. 하지만 많은 언어학자들은 기존 연구 프레임에 기대는 대신에 언어 자체의 표현 방식에 집중하여 현상을 분석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연구 대상 언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피해야 할 편견임을 유념해야 한다. 문법 프레임은 언어 현상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수 있고, 어떠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다. 그리고 일단 이런 편견이 만들어지면 그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필요한 것은 언어 자료와 합리적 사유에만 의거해 지금껏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현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러한 생각이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며, 결국 한계가 있더라도 기존 프레임 안에서 분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나는 프레임 없는 문법 연구가 훨씬 더 많이 존재해왔음을 보여주려 한다.

George Lakoff, *Thinking Points*;

B. Heine & H. Narrog (eds.),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자료 5

체스 명인은 체스판 위의 말들을 5초 정도만 봐도 말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낸다. 그루트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우수한 체스 명인의 단기기억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반해 체이스와 사이먼은 이 능력이 탁월한 기억력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체스판 위의 말들을 무작위로 배열할 경우에는, 체스 명인 또한 보통 사람처럼 말의 위치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체스 명인이 말의 위치를 기억해 복원해내는 능력은 게임 중 말들이 체스판 위에서 그룹을 지으며 만들어가는 구조를 인지하는 능력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아래 그래프는 체스 실력에 따라 체스판 위의 말의 위치를 평균 몇 개나 기억해 내는지를 보여준다. 체스판 위의 말의 위치는 게임 상황일 때와 무작위 상황일 때로 나누어지며, 체스 실력은 “하-중-상-명인”으로 구분된다.



W. Chase & H. Simon, *Perception in Chess*;

B. Baars & N. Gage,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프레임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3〉을 활용하여 〈자료 5〉에 제시된 체이스와 사이먼의 주장을 그래프의 수치를 근거로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V)

논술고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캐시 데이빗슨(Cathy N. Davidson)은 최근 저서에서, “인터넷이 아이들의 정서개발에 해로울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의문보다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및 학습 환경은 바람직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데이빗슨이 이 질문에 대해 제시한 대답은 “존재하지 않을 세상에 대한 준비를 우리 학생들에게 계속 시킬 수는 없다”로 간결하게 요약할 수 있다. 디지털의 번성을 마흔이 넘는 어른들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유용성을 무시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위계적인 억압은 결국 문화전반에 대한 파괴행위나 다름없다.

어른들은 디지털 영상을 만들어보려는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길고 지루한 고전 소설책을 던져주거나 유치한 정치코미디 사이트에 접속하는 아이들의 컴퓨터를 꺼버리면서 감동적인 고전 명화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런 행위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현실세계에 대해 우리 스스로 눈을 가리고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한때는 최고의 가치를 지녔던 먼지 쌓인 고전 소설책이나 아날로그 기기에서 상영되는 명화는 언젠가 다시 그 가치가 부각될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고전문학 호사가나 전통문화 평론가들만이 관심을 가질 작품일 뿐이다. 반면에 디지털 영상이나 정치풍자 웹사이트는 지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유익하고

유쾌하기까지 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스마트한 전자책 덕분에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다독을 즐기며 잊었던 독서 취미를 다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물리적 공간이라는 교실의 개념 또한 바뀌어야 한다. 모든 기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이를 통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료를 순식간에 불러올 수 있고 교사와 학생이 늘 함께 머무는 가상공간이 주어진다면, 굳이 새벽에 눈발이 날릴 때 통학버스가 올 수 있을지를 걱정해야 할 필요도 없다. 지금보다 한층 진화한 기기들을 통해 교사와 각 학생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면 지각하는 학생의 문 여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과 주의력이 빼앗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가상교실에서 두 시간의 집중이 열흘 동안의 현실세계 교실에서 배울 수 있는 양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이제는 믿어지지 않는가?

Virginia Heffernan, *New York Times*

자료 2

Computers and their associated technologies are awesome additions to a culture and are quite capable of altering the way we think. But like all important technologies of the past, there are controversies related to the pros and cons. It is shocking that in the twenty-first century, we can still talk of new technologies as if they were gifts from the gods. Don't we all know what the combustion engine* has done for us and against us? What television is doing for us and against us? At the very least, we need to discuss about what our kids will lose, and what we will lose, if they enter a world in which computer technology is their chief source of motivation, authority, and psychological sustenance**. Will they become more impressed by calculation than human judgment? Will speed of response become, more than ever, a defining quality of intelligence? Is virtual reality a new form of therapy?

Robert Fulghum, in his recent book, elegantly summarized what technology advocates overlooked and left out: share everything, play fair, don't hit people, put things back where you found them, clean up your own mess, and wash your hands before you eat. We have ample evidence that



it takes many years of teaching such social values in school before they have been accepted and internalized. That is why it won't do for children to learn in "settings of their own choosing." That is also why schools require children to be in a certain place at a certain time and to follow certain rules, like raising their hands when they wish to speak, not talking when others are talking, not chewing gum, not leaving until the bell rings, and exhibiting patience toward slower learners. This process is called making civilized people. The god of technology does not appear interested in this function of schools. At least, it does not come up much when technology's virtues are only emphasized.

* combustion engine: 연소기관

** sustenance: 영양분

Neil Postman, *Virtual Students, Digital Classroom*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문제 2

〈자료 2〉에 근거하여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3

2013년도 (단위: %)		체감 계층		
		고소득층 (0.8)	중산층 (51.8)	저소득층 (47.4)
OECD 기준 계층	고소득층 (30.8)	0.8	22.7	7.4
	중산층 (61.9)	0.0	27.9 <45.1>	34.0 <54.9>
	저소득층 (7.3)	0.0	1.3	6.0

※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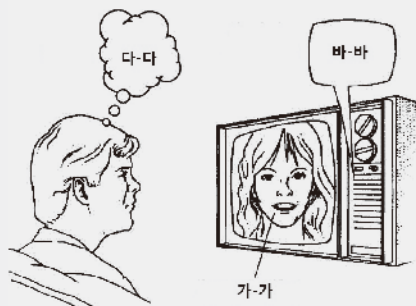
1) < > 안의 수치는 OECD 기준 중산층 중에서 해당 체감 계층의 비중임.

2) 각 수치에는 반올림이 적용됨.

- 3) OECD 기준 계층이란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처분소득에 근거하여 분류한 사회경제적 계층으로서 OECD와 한국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정의임.
- 4) 체감 계층이란 본인이 생각하기에 스스로가 해당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계층으로서 주관적 판단에 기초함.

○○경제연구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자료 4



일반적으로 말소리 지각이 청각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로 대면해 대화하는 상황에서 말소리 지각은 청각뿐 아니라 시각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람들은 귀로 듣는 소리만으로는 잘 알 수 없는 조음방법이나

위치에 관한 정보를 눈으로 입 모양을 읽음으로써 파악할 수 있다. 맥거크 효과(McGurk effect)는 사람이 말소리를 지각하는 동안 시각적인 정보와 청각적인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맥거크 효과는 시각정보와 청각정보가 서로 불일치되는 조음위치 정보를 주는 자극이 제시될 때 발생한다. 예컨대, 청각적으로 “바”인 소리가 시각적인 입모양이 “가”인 동영상에 더빙된 자극을 보고 들을 때 “다”로 지각된다. 이러한 맥거크 효과는 시각적인 조음위치 정보가 자동적으로 말소리 처리에 통합됨을 시사하고 있다. 맥거크 효과는 서구 문화에서는 강력한 효과가 있으나, 미국인들에 비해 시각적인 영향을 덜 받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경우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보고가 있다. 한국인의 경우에도 중국인,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미국인에 비해 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 이 결과는 말소리 지각이 문화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최양규, 『조음위치에 관한 시각정보가 말소리 지각에 미치는 영향』



자료 5

세상에 만족이 있느냐 인생에게 만족이 있느냐
있다면 나에게도 있으리라

세상에 만족이 있기는 있지마는 사람의 앞에만 있다
거리는 사람의 팔 길이와 같고 속력은 사람의 걸음과 비레가 된다
만족은 잡으려야 잡을 수도 없고 버리려야 버릴 수도 없다

만족을 얻고 보면 얻은 것은 불만족이요 만족은 의연히 앞에 있다
만족은 우자(愚者)나 성자(聖者)의 주관적 소유가 아니면 약자의 기대뿐이다
만족은 언제든지 인생과 수적 평행(豎的平行)이다
나는 차라리 발꿈치를 돌려서 만족의 목은 자취를 밟을까 하노라

아아, 나는 만족을 얻었노라
아지랭이 같은 꿈과 금실 같은 환상이 님 계신 꽃동산에 돌릴 때에 아아, 나는
만족을 얻었노라

* 수적(豎的): 마주 서 있는

한용운, 『만족』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객관적 현상과 주관적 판단의 불일치’라는 측면에서 비교·분석
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5〉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료 3〉의 현상을 해석·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

출제 의도

한국의국어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는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문제를 구성하였고, 주제와 관련된 글의 요지를 파악하고, 비교평가, 비교분석, 적용추론 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Part 1에서는 “도덕과 거리”를 핵심 논제로 하여 1개의 국문 〈자료〉와 1개의 영문 〈자료〉로 [문제]를 구성했다. [문제]는 국문 및 영문 〈자료〉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두 〈자료〉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읽어 〈자료 2〉에 제시된 입장에 근거하여 〈자료 1〉의 견해를 비판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1〉은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영문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지식과 정보가 유례없이 빠르게 유통되는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의사소통의 매체가 되는 외국어 실력, 특히 영어 실력의 선취가 필수적이라는 한국의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 때문이다. 영문 〈자료〉는 어휘, 통사구조, 개념과 관련하여 난이도 측면에서 현재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이고, 분량도 200 단어 내외여서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영어를 학습한 학생들은 무난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이다.

Part 2에서는 “전제”를 핵심 논제로 하여 도표 한 개를 포함한 세 개의 〈자료〉로 [문제]를 구성했다. 〈자료 3〉은 1789년 프랑스에서 선언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의 내용과 의의를 논한 글이고, 〈자료 4〉는 타인의 사고와 행동을 예측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고, 〈자료 5〉는 인터넷 언어의 순위와 관련된 도표와 글이다. [문제]는 주장, 판단, 예측 등 다양한 인간의 사고는 특정한 ‘전제들’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전제 자체를 파악하고, 해당 전제가 바뀌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를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출전

논술고사에 활용된 국문과 영문 <자료>는 원저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한 후, 이를 출제의도에 부합하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 1> 출처 : Matthew Wylie, *Moral Crime and Moral Punishment*

<자료 2> 출처 :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자료 3> 출처 : Eric Hobsbawm, *The Age of Revolution 1789~1848*

<자료 4> 출처 : Michael Gazzaniga (ed.), *The New Cognitive Neuroscience*

<자료 5> 출처 : David Crystal, *Internet Linguistics*

각 자료 요지

<자료 1> 이 자료는 ‘거리가 도덕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기술한다. 글의 요지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의 감정이 그 대상과의 거리에 멀어짐에 따라 약화된다는 것이다. 글의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 디드로, 발자크의 말을 인용해 이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료 2> 이 자료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한 대목으로, 등장인물이 ‘신이 만든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어린 아이들의 고통’이 존재하고, 그것은 ‘인류 전체의 고통’을 대변한다. 이런 고통이 존재하는 한 ‘그 위에 세워진’ 신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즉 그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반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자료 3> 1789년 프랑스대혁명 시기 발표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에 함축되어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과 이를 실현하고자한 핵심 주체인 부르주아 개념에 관한 글이다.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인간과 시민”은 제한된 사회 구성원만을 의미하고 있다. 천부인권과 법 앞의 평등을 내세워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한 부르주아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자연권으로 전제하는 재산소유자만을 의미했다.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는 완전한 평등 및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체제가 아니었다.

<자료 4> 마음이론(theory of mind)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이의 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전제(assumption)’의 역할을 논하고 있는 글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 예측,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바람, 믿음, 가식과 같은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는 데, 실험에서 피험 아동은 앤의 개입으로 인해 샬리가 믿고 있는 구슬의 위치와 실제 구슬의 위치가 달라져 있음을 알면서도 샬리의 심리 상태에 기초하여 샬리가 구슬을 찾기 위해 바구니를 열 것이라고 대답한다는 내용이다.

〈자료 5〉 ‘인터넷 언어’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글로, 예측 및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그 배후에 깔린 ‘전제(assumption)’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자한 자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영어가 곧 인터넷 언어라고 생각해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상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영어의 주도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표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상위 10개 언어를 요약하고, 영어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인터넷 사용자 수로 볼 때 조만간 중국어가 그 1위 자리를 장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용적 측면

- ① 한국외대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language studies)의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지문을 활용한다.
- ② 한국외대의 통합논술 교육의 목표인 1.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2.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3.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4. 올바른 가치관 정립, 5.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6.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 ③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④ 문학, 비문학 지문을 고루 활용하되 제시문은 개념과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하였다.
- 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⑥ 실험결과, 비평, 개념 적용 사례의 다양한 범주의 내용과 도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 ⑦ 기본적인 학습 역량에 주안점을 두어 앞의 두 문제에서는 요지 파악, 비판 평가를, 뒤의 두 문제에서는 비교분석, 적용 및 추론능력을 물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형식적 측면

- ① Part 1에서는 국문, 영문 <자료> 하나씩으로 구성하고, Part 2에서는 국문 <자료> 세 개로 지문을 구성한다.
- ② 첫 번째 문항은 핵심어(key word)가 아닌 요지를 서술하도록 출제하였다.
- ③ 두 번째 문항은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 2>에 제시된 입장에 근거하여 <자료 1>의 견해를 비판하도록 출제하였다.
- ④ 세 번째 문항은 비교 분석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 3>과 <자료 4>에서 핵심 전제를 추출하고 그런 전제가 바뀔 경우 예측되는 결과를 논하도록 출제하였다.
- ⑤ 네 번째 문항은 <자료 3>과 <자료 4>의 전제의 역할을 고려하여 <자료 5>에 제시된 표와 글의 내용을 추론하도록 출제하였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

출제 의도

한국의국어대학교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로 실시되었다. 첫째,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준수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 둘째, 한국의국어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

총 네 문항이 출제되는데 Part 1과 Part 2로 이루어진다. Part 1은 두 개의 <자료>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문제 1]과 [문제 2]가 주어진다. [문제 1]은 200자 내외로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설명하는 것이다. <자료 1>은 하향식 사고방식에 기초한 통찰의 의미와 의의에 대해 논하고, <자료 2>는 고정관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제는 학문 탐구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의 요지 파악과 요약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문제 2]는 <자료 1>의 관점에서 <자료 2>가 지적한 한계를 논하는 것이다. 곧 하향식 사고방식의 관점에서 고정관념이란 사고/판단 방식이 가지는 한계를 논해야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두 개의 자료를 각각 적절하게 이해/파악한 후 주어진 발문에 따라 상관성을 적절하게 논해야 한다. <자료 2>는 영문으로 주어졌다. 영문 <자료>를 제시한 것은 지식과 정보가 유례없이 빠르게 유통되는 시대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지구촌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의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을 감안할 때 영어 실력은 학생 선발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이다.

Part 2는 3개의 <자료>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문제 3]과 [문제 4]가 주어진다. <자료 3>은 학교를 구성하는 3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의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기대'를 보여준다. <자료 4>는 문학작품인 이문열의 '금시조'이고 <자료 5>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와 '독서'에 나오는 한글 관련 지문을 재구성한 것이다. [문제 3]은 <자료 3>과 <자료 4>를 가치관 중심으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자료 3>의 등장인물인 석담과 고죽은 서화에 대해 다소 상반된 가치관을 드러내는데 고죽이 도를 중시하는 데 비해 고죽은 예/법을 중시한다. 이것을 <자료 3>에 적용한다면 석담이 도덕성을, 고죽이 기본 지식, 개성과 창조성을 중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주어진 두 개의 자료를 적절하게 이해/분석/비교하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문제 4]는 <자료 3>의 설문조사 결과를 <자료 5-가>의 주된 가치에 입각하여 해석한 후 <자료 5-나>의 주제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수 의견 중시의 원칙하에 초중고 각각으로 추론하는 것이다. <자료 5>는 두 개의 소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앞 부분은 한글의 창조성/독특성을, 뒷부분은 한글의 통합성을 제시한다. 따라서



우선 <자료 3>을 개성/창조성이라는 가치에 기반하여 해석을 해야 한다. 그런 후에는 통합성이라는 측면에서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하는데 그것은 <자료 3>에 제시된 다수 의견 중시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자료 3>은 학교 교육의 세 주체가 모두 기본 지식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반드시 언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주어진 자료들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의 관점에서 적용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이상의 4문제는 각각 다음의 의도로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Part 1의 [문제 1]과 [문제 2]는 요지 요약, 자료에 제시된 특정한 논점에서 다른 <자료>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으로 요약 능력과 제한적인 논술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Part 2의 [문제 3]과 [문제 4]는 두 이질적인 <자료>를 특정한 논점에서 비교·분석하기, 제시된 몇 개의 요건들을 충족하며 적용하고 추론하기를 통해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적용과 추론 능력,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료 출전

논술고사에 활용된 국문과 영문 <자료>는 독립된 저작물에서 추출하기보다는 원저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한 다음 이를 출제의도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국문 <자료>는 고등학교 교과서를 비롯한 다양한 간행물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해하기 쉽도록 윤문하여 사용하였다. 논술고사에 활용된 <자료>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 1> 출처 : Wolfgang Köhler, *Die Aufgabe der Gestaltpsychologie* 외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2> 출처 : Glassman E. William의 *Approaches to Psychology*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3> 출처 : 이은주, 『통계, 학교를 말하다』

<자료 4> 출처 : 이문열, 『금시조』

<자료 5> 출처 : <○○출판사>, 고등학교 『국어』

각 자료 요지

〈자료 1〉 게슈탈트 심리학과 통찰을 중심으로 하향식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즉 객관적인 개별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에서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만 효율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자료 2〉 기존지식 혹은 경험을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고정관념을 비판한다. 고정관념은 과거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 일반화되어 고착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무시하고, 결국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자료 3〉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기대가 교사, 학부모, 학생 집단이 다를음을 보여주는 표이다. 교사 집단은 ‘도덕성’을, 학부모 집단은 ‘기본 지식’을 학교급과 상관없이 학교 교육목표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학생 집단만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학부모 집단과 같은 선호도를 보이다가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집단과는 전혀 다르게 ‘개성과 창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료 4〉 서화에 대한 사제 간의 관점이 다를음을 보여주고 있다. 스승인 석담 선생은 서화에서 도(道)를 예(藝)나 법(法)보다 우선이며, 이 둘을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제자인 고죽은 이러한 스승의 생각에 반하며 수레와 소에 빚대어 예(藝)가 먼저고 도(道)가 뒤라는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자료 5〉 (가)에서는 한글이 문자 창제 과정과 원리가 밝혀진 문자임을 밝히며, 자음의 기본자나 모음의 제자 원리를 설명하며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한글의 특성으로 ‘독창성’을 말하고 있다. (나)에서는 창제자가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성을 발휘한 한글의 특성을 초성·중성·종성 체계, 철학, 사상, 음운학 이론, 각종 문자 자료 등을 언급하며 밝히고 있다.



내용적 측면

- ① 한국외대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 (language studies)의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지문을 활용한다.
- ② 한국외대의 통합논술 교육의 목표인 1.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2.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3.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4. 올바른 가치관 정립, 5.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6.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 ③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④ 문학, 비문학 지문을 고루 활용하되 제시문은 개념과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하였다.
- 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⑥ 실험결과, 비평, 개념 적용 사례의 다양한 범주의 내용과 도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 ⑦ 기본적인 학습 역량에 주안점을 두어 앞의 두 문제에서는 요지 파악, 비판 평가를, 뒤의 두 문제에서는 비교분석, 적용 및 추론능력을 물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형식적 측면

- ① Part 1에서는 국문, 영문〈자료〉하나씩으로 구성하고, Part 2에서는 국문〈자료〉세 개로 지문을 구성한다.
- ② 첫 번째 문항은 요지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 ③ 두 번째 문항은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도록 출제하였다.
- ④ 세 번째 문항은 〈자료 3〉과 〈자료 4〉의 비교 대상을 제시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 ⑤ 네 번째 문항은 표나 그래프 자료에 대해 적용, 추론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I)

출제 의도

한국의국어대학교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논술고사는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주제들을 선정하여 문제를 구성하였고, 주제와 관련된 글의 요지를 파악하고, 비교평가, 비교분석, 적용추론 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Part 1에서는 “학습된 무기력”과 “피그말리온 효과”를 핵심 논제로 하여 한 개의 국문 <자료>와 한 개의 영문 <자료>로 [문제]를 구성했다. [문제]는 국문 및 영문 <자료>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두 <자료>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읽어 영문 <자료>에 제시된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에 근거하여 국문 <자료>에 제시된 “피그말리온 효과”의 한계를 분석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1>은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영문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지식과 정보가 유례없이 빠르게 유통되는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지구촌 의사소통의 매체가 되는 외국어 실력, 특히 영어 실력의 선취가 필수적이라는 한국의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 때문이다. 영문 <자료>는 어휘, 통사구조, 개념과 관련하여 난이도 측면에서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 영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이고 분량도 200단어 내외여서 고등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영어를 학습한 학생들은 무난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글이다.

Part 2에서는 “프레임(틀)”을 핵심 논제로 하여 그래프 한 개를 포함한 세 개의 <자료>로 [문제]를 구성했다. <자료 3>은 문학 작품의 감상과 해석에서 프레임(문학이론)의 긍정적 역할을 설명한 글이고, <자료 4>는 문법 프레임의 부정적 측면을 다룬 글이고, <자료 5>는 (전문가) 프레임과 관련된 그래프와 글이다. [문제]는 동일한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는 글들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추론한 결과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출전

논술고사에 활용된 국문과 영문 <자료>는 원저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한 후, 이를 출제의도에 부합하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 1〉 출처 : Education Portal 외

〈자료 2〉 출처 : Robert Tauber, *Self-Fulfilling Prophecy*; 〈○○출판사〉, 고등학교 『사회·문화』

〈자료 3〉 출처 : Lois Tyson, *Critical Theory Today*

〈자료 4〉 출처 : George Lakoff, *Thinking Points*; B. Heine & H. Narrog (eds.),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자료 5〉 출처 : W. Chase & H. Simon, *Perception in Chess*; B. Baars & N. Gage,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각 자료 요지

〈자료 1〉 실험그룹 1의 개는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중단되는 것을 학습하였고, 그룹 2의 개는 동일한 전기 충격이 가해지나 스스로는 어떤 반응으로도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그룹 2의 개들은 무기력을 학습했고, 만성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들을 보였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다.

〈자료 2〉 ‘피그말리온 효과’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 글이다. 쥐를 대상으로 한 미로 통과 실험에서 연구자가 쥐들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쥐들의 학습 성과가 달라지며,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대할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말하고 있다. 이 실험의 의미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자료 3〉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란 없다. 때로 문학작품에 행해지는 해석이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작품에 대한 해석이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이 스며든 나머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뿐이다. 일단 비평이론에 익숙해지고 나면,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된다. 이론을 통해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즐기고 평가하는 능력도 더 향상되는 것이다.

〈자료 4〉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언어 현상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수 있고, 어떠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연구 대상 언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피해야 할 편견임을 유념해야 한다. 언어학자는 언어 자료와 합리적 사유에만 의거해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현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료 5〉 체스 명인은 체스판 위의 말들을 5초 정도만 봐도 말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낸다. 체이스와 사이먼에 따르면, 체스 명인이 말의 위치를 기억해 복원해내는 능력은 게임 중 말들이 체스판 위에서 그룹을 지으며 만들어가는 구조를 인지하는 능력 때문이다. 왜냐하면 체스판 위의 말들을 무작위로 배열할 경우에는, 체스 명인 또한 보통 사람처럼 말의 위치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용적 측면

- ① 한국외대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language studies)의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지문을 활용한다.
- ② 한국외대의 통합논술 교육의 목표인 1.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2.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3.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4. 올바른 가치관 정립, 5.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6.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 ③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④ 문학, 비문학 지문을 고루 활용하되 제시문은 개념과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하였다.
- 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⑥ 실험결과, 비평, 개념 적용 사례의 다양한 범주의 내용과 도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 ⑦ 기본적인 학습 역량에 주안점을 두어 앞의 두 문제에서는 요지 파악, 비판 평가를, 뒤의 두 문제에서는 비교분석, 적용 및 추론능력을 물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형식적 측면

- ① Part 1에서는 국문, 영문 <자료> 하나씩으로 구성하고, Part 2에서는 국문 <자료> 세 개로 지문을 구성한다.
- ② 첫 번째 문항은 핵심어(key word)가 아닌 요지를 서술하도록 출제하였다.
- ③ 두 번째 문항은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 1>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료 2>에 제시된 효과의 한계를 논하도록 출제하였다.
- ④ 세 번째 문항은 <자료 3>과 <자료 4>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도록 출제하였다.
- ⑤ 네 번째 문항은 <자료 3>의 내용을 적용하여 <자료 5>에 제시된 그래프와 내용에 대해 추론하도록 출제하였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V)

출제 의도

한국외국어대학교 2015학년도 논술고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전제로 실시되었다. 첫째, 한국 중등학교의 교과과정을 준수하여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다. 둘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이념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

총 네 문항이 출제되는데 Part 1과 Part 2로 이루어진다. Part 1은 두 개의 <자료>로 구성되는데 이를 통해 [문제 1]과 [문제 2]가 주어진다. [문제 1]은 200자 내외로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는 것이다. <자료 1>은 인터넷/디지털의 발전과 보편화/효용성을 중시하고 옹호하는 입장을 드러내고, <자료 2>는 학생들에게 기계/디지털을 통한 편의성보다는 인간성, 사회성 등을 교육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 문제는 학문 탐구를 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자료의 요지 파악과 요약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문제 2]는 <자료 2>에 근거하여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는 것이다. 곧 자녀/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 인간성, 사회성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디지털 매체들이 가지는 효용성의 한계를 논해야 한다. 이 문제는 두 개의 <자료>를 각각 적절하게 이해/파악한 후 주어진 발문에 따라 상관성을 적절하게 논해야 한다. <자료 2>는 영문으로 주어졌다. 영문 <자료>를 제시한 것은 지식과 정보가 유례없이 빠르게 유통되는 시대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지구촌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을 감안할 때 영어 실력은 학생 선발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이다.

Part 2는 3개의 <자료>로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문제 3]과 [문제 4]가 주어진다. <자료 3>은 고소득층, 중산층, 저소득층 분포를 OECD 기준 계층과 체감 계층으로 제시한 것이다. <자료 4>는 조음위치에 시각정보가 말소리 지각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자료 5>는 한용운의 시작품으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그것의 속성 상 성취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현재와 과거를 긍정/만족하는 내용이다.

[문제 3]은 <자료 3>과 <자료 4>를 객관적 현상과 주관적 판단의 불일치라는 측면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자료 3>의 OECD 기준을 객관적 지표라고 할 때 그와 비교한 체감 계층에는 다소 주관적 요소가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4>에서도 텔레비전의 화면을 보면서 인지한 입모양과 스피커에서 실제로 나오는 음성을 다르게 인식하고 조합하여 다르게 발음하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러한 측면들을 분석하여 제시해야 하는데 이 문제는 주어진 두 개의 자료를 적절하게 이해/분석/비교하는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문제 4]는 <자료 5>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료 3>의 현상을 해석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자료 5>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는 인생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긍정/만족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료 3>에서 객관적 지표라고 할 수 있는 OECD 기준 대비 주관적인 판단인 체감 계층에서 긍정/만족하는 분류군을 찾아 해석하고 추론해야 한다. 이 문제는 주어진 <자료>들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문제의 관점에서 적용하고 추론하는 것이다.

이상의 4 문제는 각각 다음의 의도로 출제되었다고 할 수 있다. Part 1의 [문제 1]과 [문제 2]는 요지 요약, 자료에 제시된 특정한 논점에서 다른 <자료>의 문제점을 논하는 것으로 요약 능력과 제한적인 논술 능력을 측정하려는 것이다. Part 2의 [문제 3]과 [문제 4]는 두 이질적인 <자료>를 특정한 논점에서 비교·분석하기, 제시된 몇 개의 요건들을 충족하며 적용하고 추론하기를 통해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적용과 추론 능력,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 제시 능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자료 출전

논술고사에 활용된 국문과 영문 <자료>는 독립된 저작물에서 추출하기보다는 원저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한 다음 이를 출제의도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국문 <자료>는 다양한 저작물 가운데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이해하기 쉽도록 운문하여 사용하였다. 논술고사에 활용된 <자료>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 1> 출처 : Virginia Heffernan, *New York Times*(2011. 08. 07)을 바탕으로 작성

<자료 2> 출처 : Neil Postman, *Virtual Students, Digital Classman*을 바탕으로 작성

<자료 3> 출처 : ○○경제연구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자료 4> 출처 : 최양규, 『조음위치에 관한 시각정보가 말소리 지각에 미치는 영향』

<자료 5> 출처 : 한용운, 『만족』

각 자료 요지

<자료 1> <자료 1>에서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교실도 디지털 가상공간의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과 속도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료 2〉 〈자료 2〉에서는 신기술의 무조건적인 도입을 경계하고, 근본적인 인간성의 확립에 바탕을 둔 사회적인 가치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자료 3〉 〈자료 3〉은 소득기준 OECD 계층과 설문에서 나타난 체감 계층의 불일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고소득층의 0.8%만이 스스로 고소득층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22.7%와 7.4%는 각각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생각한다. 공식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는 더욱 심각하다. OECD 기준 중산층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45.1%에 불과하며, 나머지 55%는 자신을 저소득층이라 여긴다. 반면, OECD 기준 저소득층 7.3% 중 17.8%(전체의 1.3%)는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긴다. 〈자료 3〉은 객관적인 소득분류와 주관적 체감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각 경제적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불만족도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OECD는 소득수준만으로 계층을 정의한 반면, 국민들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자산 수준,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층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자료 4〉 언어사용자는 말소리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청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과 같은 시각 정보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맥거크 효과(McGurk effect)는 바로 이와 같은 말소리 지각의 특성을 활용해 시각정보와 청각정보의 불일치 현상을 조명하고, 이 과정에서 말소리 지각의 주관적 해석을 다루었다.

〈자료 5〉 〈자료 5〉는 한용운의 시작품인 「만족」인데, 시적 화자는 세상과 인생에 만족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면서 만족이라는 것이 부단히 추구되는 성격의 것이어서 늘 자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에 높임으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화자의 결론은 만족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이나 성인의 주관적인 것이거나 약자의 기대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화자는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차라리 현재와 과거를 긍정/만족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넷 째 연에서는 (주관적인 또는 깨우침으로서의) 만족을 얻었다고 한다.



내용적 측면

- ① 한국외대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 (language studies)의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지문을 활용한다.
- ② 한국외대의 통합논술 교육의 목표인 1.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2.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3.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4. 올바른 가치관 정립, 5.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6.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 ③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④ 문학, 비문학 지문을 고루 활용하되 제시문은 개념과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하였다.
- 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⑥ 실험결과, 비평, 개념 적용 사례의 다양한 범주의 내용과 도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 ⑦ 기본적인 학습 역량에 주안점을 두어 앞의 두 문제에서는 요지 파악, 비판 평가를, 뒤의 두 문제에서는 비교분석, 적용 및 추론능력을 물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형식적 측면

- ① Part 1에서는 국문, 영문 <자료> 하나씩으로 구성하고, Part 2에서는 국문 <자료> 세 개로 지문을 구성한다.
- ② 첫 번째 문항은 요지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 ③ 두 번째 문항은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도록 출제하였다.
- ④ 세 번째 문항은 <자료 3>과 <자료 4>의 비교 대상을 제시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 ⑤ 네 번째 문항은 표나 그래프 <자료>에 대해 적용, 추론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

Part 1

〈자료 1〉 출처 : Matthew Wylie, *Moral Crime and Moral Punishment*

〈자료 2〉 출처 : 도스토예프스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자료 1〉의 우리말 번역

카를로 긴즈부르그에 의하면, 인간이 진정한 연민이나 죄책감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가는 상당부분 그 대상과의 거리 — 실제 역사적 시간상의 거리, 물리적 공간상의 거리, 그리고 유사성의 거리에 — 에 의해 좌우된다. 그는 이 주제에 대해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말을 소개한다. “사람들은 알고 있는 이들에 대해 연민을 느낀다. 또한 사람들은 나이, 성격, 습관, 지위가 유사한 사람들에게 연민을 느낀다.” 그는 또한 문학에서 거리의 도덕적 함의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도 탐구한다. 그런 효과는 다음과 같은 문학작품의 구절들에서 잘 들어난다. “어쩌면 공간적 거리가 모든 종류의 감정과 모든 종류의 죄책감, 심지어는 범죄에 대한 것도 약화시켰다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디드로, 『아버지와 자식들의 대화』). “인도에서는 영국인들이 우리처럼 선량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너무나도 매력적인 여인이 그곳에서 불타 죽는 이 순간 당신은 평소와 같이 모닝커피를 마신 거지요?” (발자크, 『고리오영감』).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

〈자료 1〉은 ‘거리가 도덕 감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기술한다. 글의 요지는 타인에 대한 연민이나 죄책감의 감정이 그 대상과의 거리에 멀어짐에 따라 약화된다는 것이다. 글의 필자는 아리스토텔레스, 디드로, 발자크의 말을 인용해 이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자료 2〉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한 대목으로, 등장인물이 ‘신이 만든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어린 아이들의 고통’이 존재하고, 그것은 ‘인류 전체의 고통’을 대변한다. 이런 고통이 존재하는 한 ‘그 위에 세워진’ 신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즉 그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반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평가지침

〈자료 1〉의 요지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인간이 타인에게 느끼는 연민이나 죄책감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즉 연민이나 죄책감 같은 도덕적 감정이 핵심어로 추출되어야 한다.

〈자료 2〉의 요지를 정확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말하는 ‘어린 아이의 고통’이 ‘인류 전체의 고통’을 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과, 바로 그것을 근거로 등장인물이 ‘신이 만든 세계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되어야 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각 자료의 요지를 명확하게 서술한 것
	A0	
	A-	
B	B+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였으나, 각 자료의 요지를 다소 불명확하게 서술한 것
	B0	
	B-	
C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각 자료의 요지를 적절히 서술하지 못한 것
D		핵심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였고, 각 자료의 요지를 서술하지 못한 것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2

〈자료 2〉의 입장에 근거하여 〈자료 1〉의 견해를 비판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 논제는 ‘거리와 도덕 감정 사이의 관계’이다. 〈자료 1〉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인간이 타인에게 느끼는 연민이나 죄책감이 약화된다고 보는 반면에 ‘인류애적 관점’을 견지하는 〈자료 2〉의 입장에 따르면, 비록 ‘지구 반대편에 존재하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은 신이 창조한 이 세계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근거가 된다.

평가지침

이 문제의 핵심은 〈자료 1〉과 〈자료 2〉에서 타인의 고통을 보는 상반된 입장, 특히 거리가 그에 미치는 영향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동일한 논제를 대하는 〈자료 1〉과 〈자료 2〉의 입장은 절충이 어려운 고유한 입장으로서, 문제가 요구하는 바대로 〈자료 2〉의 ‘입장’에서 〈자료 1〉의 견해를 ‘비판’해야만 한다.

외견상 〈자료 2〉는 ‘거리’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지 않지만, 〈자료 1〉의 견지에서 〈자료 2〉를 읽어냄으로써 〈자료 2〉로부터 타인과의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는 ‘인류애적 입장’을 추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자료 2〉가 말하는 ‘어린이들의 고통’이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고통’을 말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그는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인류의 운명의 건물”을 세우는데 단 한 명의 어린이의 희생(눈물)이라도 요구된다면 그 건축물을 거부하겠다고 말한다. 이런 주장에 입각하게 되면,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고 있는 고통은 결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지구 반대편에 고통이 존재하는 한, 설사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멀리 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에 대해 윤리적 책임이 있다. 바로 이런 ‘인류애적인 입장’에 근거해서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인간이 느끼는 연민이나 죄의식의 감정을 약화시킨다는 〈자료 1〉의 주장을 비판해야 한다. 여기서 더 나가 타인을 향한 연민과 죄의식은 거리와 상관없이, 나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로서 간주되어야만 한다는 ‘윤리적 당위성’을 지적하는 답변은 추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 '거리가 도덕감을 약화시킨다'는 <자료 1>의 견해 파악
	A0	- <자료 2>의 어린아이의 고통을 전 인류의 고통으로 연결시켜 파악
		- <자료 2>에 나타난 신의 세계를 거부하는 입장의 근거를 '인류애'로 파악
	A-	- <자료 2>의 이런 입장에 근거해 <자료 1>의 견해를 비판
B	B+	- '거리가 도덕감을 약화시킨다'는 <자료 1>의 견해 파악
	B0	- <자료 2>의 어린 아이의 고통을 파악했으나 이를 '인류애적 입장'으로 연결시키지 못함
	B-	- <자료 2>에 나타난 어린아이의 고통에만 근거해 <자료 1>의 견해를 비판
C		<자료 1>과 <자료 2>의 관점/입장의 차이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D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Part 2

〈자료 3〉 출처 : Eric Hobsbawm, *The Age of Revolution 1789~1848*

〈자료 4〉 출처 : Michael Gazzaniga (ed.), *The New Cognitive Neuroscience*

〈자료 5〉 출처 : David Crystal, *Internet Linguistics*

〈자료 3〉, 〈자료 4〉, 〈자료 5〉의 요지

〈자료 3〉 1789년 프랑스대혁명 시기 발표된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에 함축되어 있는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과 이를 실현하고자한 핵심 주체인 부르주아 개념에 관한 글이다.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 내용에 함축되어 있는 “인간 및 시민”은 제한된 사회 구성원만을 의미하고 있다. 천부인권과 법 앞의 평등을 내세워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한 부르주아는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자연권으로 전제하는 재산소유자만을 의미했다. 이러한 전제를 기초로 한 새로운 정치질서는 완전한 평등 및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체제가 아니었다.

〈자료 4〉 마음이론(theory of mind)의 핵심 내용을 제시하고, 실험을 통해 이의 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전제(assumption)’의 역할을 논하고 있는 글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설명, 예측,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바람, 믿음, 가식과 같은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아동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는 데, 실험에서 피험 아동은 앤의 개입으로 인해 샬리가 믿고 있는 구슬의 위치와 실제

구슬의 위치가 달라져 있음을 알면서도 쉐리의 심리 상태에 기초하여 쉐리가 구슬을 찾기 위해 바구니를 열 것이라고 대답한다는 내용이다.

〈자료 5〉 ‘인터넷 언어’와 관련된 사례를 분석하고 있는 글로, 예측 및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그 배후에 깔린 ‘전제(assumption)’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자한 자료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영어가 곧 인터넷 언어라고 생각해왔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인터넷 상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 사용이 꾸준히 증가하여 영어의 주도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제시된 표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상위 10개 언어를 요약하고, 영어가 여전히 1위 자리를 지키고는 있지만 인터넷 사용자 수로 볼 때 조만간 중국어가 그 1위 자리를 장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 3

〈자료 3〉에 제시된 “인간 및 시민” 범주의 전제와 〈자료 4〉의 실험대상 아동에게 기대되는 응답에 깔려있는 전제를 각각 밝히고, 해당 전제가 바뀌었을 경우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각각 논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평가지침

〈자료 3〉과 〈자료 4〉의 내용을 분석하여 〈자료 3〉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중 “인간 및 시민” 범주의 전제를 찾아내고, 〈자료 4〉에서는 피험 아동의 행동을 예측하는 데 깔려 있는 전제를 도출해 내고 있는지를,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해당 전제가 변할 경우에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제시된 자료의 내용을 통해 파악 및 정리해 내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이 문제는, 〈자료 3~5〉에서 “제시된 범주, 판단, 예측을 성립시키는 ‘전제들’을 본문 중에 포함하고 있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전제들을 본문 중에서 찾아내 답해야 한다. 좋은 답안은 다음의 내용적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논리적으로 잘 기술하여야 한다.



구분	〈자료 3〉	〈자료 4〉
전제의 내용	사유재산을 자연권으로 전제하는 재산소유자(=부르주아)	샬리는 구슬의 위치 변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샬리는 앤이 구슬의 위치를 옮긴 것을 모른다.
전제 변화의 경우 예상되는 결과	완전한 평등주의적 사회 민주주의 사회 재산소유자의 과두정치 해소	피험 아동은 샬리가 구슬을 찾기 위해 상자를 열어 볼 것이라고 응답한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지문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통해 자료 내용에 깔려 있는 전제(assumption)를 도출해 내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모범 답안의 구성 요소는 위 '평가지침'의 4개 사항임: ① 전제의 내용-〈자료 3〉, ② 전제의 내용-〈자료 4〉, ③ 전제 변화의 경우 예상되는 결과-〈자료 3〉, ④ 전제 변화의 경우 예상되는 결과-〈자료 4〉. 이 4개 내용 항목 중 모두를 기술했거나, 1개 항목을 누락했지만 논술 내용이 흡족한 경우, A0 또는 A-로 판정함
	A0
	A-
B	B+ ① 전제의 내용-〈자료 3〉, ② 전제의 내용-〈자료 4〉, ③ 전제 변화의 경우 예상되는 결과-〈자료 3〉, ④ 전제 변화의 경우 예상되는 결과-〈자료 4〉의 4개 내용 항목 중 1~2개 항목을 누락했고, 논술 내용도 미흡한 경우, B+, B0 또는 B-로 판정함
	B0
	B-
C	위 4개 항목 중 2~3개 항목을 누락했고, 논술 내용도 미흡한 경우
D	위 4개 항목 중 3~4개 항목을 누락했고, 논술 내용도 미흡한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제 '0'점 처리함.

문제 4

〈자료 5〉에서 영어가 조만간 인터넷 언어 1위 자리를 중국어에 내줄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를 표에 의거하여 밝히고, 그 예측의 타당성 여부를 〈자료 3〉과 〈자료 4〉에서의 전제의 역할을 고려하여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평가지침

이 문제는 먼저 '영어는 조만간 인터넷 언어 1위 자리를 중국어에 내줄 것'이라는 저자의 예측을 제시된 표를 활용해 밝히는 것이다. 제시된 표에서 2010년 현재 중국어 인터넷 사용자 수가 4억 8백만 명으로, 영어 인터넷 사용자 4억 9천 6백만 명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00년과 2009년 사이 영어(252 퍼센트)와 중국어(1,162 퍼센트)의

인터넷 언어 성장률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읽어 낼 수 있다. 중국어가 영어보다 4.6배 빠르게 증가해 온 것이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인터넷 상에서 조만간 중국어가 영어보다 더 많이 사용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둘째, 이러한 예측의 근거가 된 전제(assumption)를 찾아내고 그 타당성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문제 3]과 마찬가지로, 이 문제 또한 <자료 3~5>가 “제시된 범주, 판단, 예측을 성립시키는 ‘전제들’을 본문 중에 포함하고 있다”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전제들을 본문 중에서 찾아내 답해야 한다. <자료 3>과 <자료 4>에서 추론 가능한 전제의 역할은, ‘만일 전제가 달라질 경우 주장/예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자료 5>에서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전제는 “인터넷 사용자 수”이다. 하지만 인터넷 언어를 단순히 인터넷 사용자 수만을 가지고 유추해 내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인터넷 언어는 사용자 수뿐만이 아니라, 해당 언어로 운영되는 사이트 수, 해당 언어로 작성된 오리지널 말뭉치, 인터넷 사용자 별 사용 빈도와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터넷 언어 순위는 저자의 예측과 다르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아래의 주요 사항이 필히 포함되어야 함 첫째, 제시된 표에서 2000년과 2009년 사이 영어와 중국어의 인터넷 언어 성장률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 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조만간 중국어가 영어보다 더 많이 사용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음을 ‘표에 의거하여’ 지적해야 함
	A0	둘째, 이러한 예측의 전제를 ‘본문 중에서’ 찾아내고, 그 타당성 여부를 평가해야 함. 본문 중에 제시된 예측의 전제는 ‘인터넷 사용자 수’임. 하지만 인터넷 언어는 사용자 수뿐만이 아니라, 해당 언어로 운영되는 사이트 수, 해당 언어로 작성된 오리지널 말뭉치, 인터넷 사용자 별 사용 빈도와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A-	위 두 사항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으나, 기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정도에 따라 A0 또는 A-로 판정함
B	B+	위 두 부분 중 한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기술 내용 또한 미흡한 정도에 따라 B0 또는 B-로 판정함
	B0	
	B-	
C		위 두 부분 모두를 정확하게 정리해 내지 못하고, 기술 내용 또한 미흡한 경우
D		잘못된 해석 및 잘못된 내용만을 기술한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

Part 1

〈자료 1〉 출처 : Wolfgang Köhler, *Die Aufgabe der Gestaltpsychologie* 외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2〉 출처 : Glassman E. William, *Approaches to Psychology*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1〉의 우리말 번역

사회적 고정관념은 흔히 처음에 어떤 특정한 경험이나,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의 관찰을 통해 형성된다. 그리고 나서 이 정보가 일반화되어 상황에 관계없이 한 집단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될 때, 이러한 특정 생각이나 느낌은 고정관념이 된다. 상황이 변하는데 그 고정관념은 변하지 않을 때, 또는 고정관념이 한 사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대신 사용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언젠가 한 친구가 자신의 여섯 살 된 아들이 학교에서 경험했던 것을 말해 주었다. 아들의 교사는 아이들에게 ‘아빠가 편히 쉬는 모습을 그려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교사는 아이가 나무를 자르고 있는 남자를 그리고 있음을 보고는 ‘아니지. 내가 아빠가 쉬고 있는 모습을 그리라고 했잖니.’ 라고 말했다. 그 여섯 살 된 사내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근데 우리 아빠는 쉬이기 위해 정말 나무를 잘라요!’라고 외쳤다. 실은 그 아이 아빠의 ‘일’이 온종일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이었다. 그 사내아이의 그림이 아니라 그 교사의 고정관념이 문제였던 것이다. 하향식 도식으로서의 고정관념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속단할 수 있게 하며, ‘모든’ 도식은 현실을 왜곡할 수 있는 이러한 위험을 수반한다.

우리가 이러한 왜곡을 인식할 가능성은 ‘확증편향’이라는 현상에 의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정보에 집중하는 반면에, 그 믿음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확신이 강하게 들수록 왜곡의 위험성은 그만큼 커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오류를 드러낼 정보를 찾아내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30년 경력의 의사가 최근에 졸업한 인턴보다 오진을 인식할 가능성이 낮는데, 왜냐하면 경험이 많을수록 그 만큼 자신감이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설명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

〈자료 1〉 게슈탈트 심리학과 통찰을 중심으로 하향식 사고방식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즉 객관적인 개별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에서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만 효율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자료 2〉 기존지식 혹은 경험을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고정관념을 비판한다. 고정관념은 과거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 일반화되어 고착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서 객관적인 정보를 무시하고, 결국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평가지침

이 문제는 전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개별적인 사실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하향식 사고방식과 특정 관찰이나 경험을 통해 형성된 고착화된 사고방식으로서의 고정관념에 대해 논한 두 자료에 대해 그 요지를 제대로 추출해 내 서술할 수 있는 지를 측정한다. 대비되는 두 개념을 포함한 두 자료를 200자 내외로 짧게 요약하여야 하므로 정확한 핵심어를 추출하여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간명한 서술로 연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통찰, 하향식 사고방식, 고정관념과 같은 개념은 이미 고등학교 정규과정의 「독서와 문법」, 「사회」 등의 교과서에 등장하는 주제로서 수험생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고, EBS 교육방송을 포함한 미디어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므로 고등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주제를 파악하고 요지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채점 시에는 정확한 요지파악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는 100자 내외의 상당히 짧은 서술이 할당되므로 표현력이나 논리적인 구성력을 보기보다는 핵심논지를 적절히 추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곧 배점의 기준이 되므로 간명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핵심어(하향식 사고방식, 통찰, 고정관념)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각 자료의 요지를 명확하게 서술한 것
	A0	-〈자료 1〉은 '하향식 사고방식/문제해결'과 동시에 '통찰'을 활용하여 서술
	A-	-〈자료 2〉는 '고정관념'을 활용하여 서술
B	B+	핵심어(하향식 사고방식, 통찰, 고정관념)를 정확하게 사용하였으나, 각 자료의 요지를 다소 불명확하게 서술한 것
	B0	
	B-	
C		핵심어(하향식 사고방식, 통찰, 고정관념)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각 자료의 요지를 적절히 서술하지 못한 것
D		핵심어(하향식 사고방식, 통찰, 고정관념)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였고, 각 자료의 요지를 서술하지 못한 것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2

〈자료 1〉의 관점에서 〈자료 2〉가 지적한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 논제는 '하향식 사고방식'이다. 〈자료 1〉은 객관적인 개별사실에만 집중하지 말고 상황 고유의 관점에서 전체에서 부분을 조망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해야만 효율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강조한다. 반면 〈자료 2〉는 통찰의 결여로 인해 상황을 무시함으로써 빚어지는 오류나 왜곡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즉 사전지식의 편의성 및 효율성에 과도하게 의지함으로써 빚어지는 왜곡과 오류 발생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평가지침

이 문제는 〈자료 1〉에서 논해지는 고정관념의 한계를 하향식 사고방식으로서의 통찰이란 관점에서 파악, 지적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개별 상황에 앞서 전체상황을 유연하게 바라볼 수 있는 조망 능력이야말로 왜곡과 오류를 불러일으키는 고정관념의 한계를 보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식의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답안을 작성할 때 〈자료 2〉의 내용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의

타당성을 인정하되 <자료 1>에 나타난 통찰의 중요성 측면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 <자료 1>과 <자료 2>가 연계되어야 함 - <자료 1>의 하향식 통찰과 달리 <자료 2>의 하향식 고정관념은 상황의 적절한 고려가 부족한 한계 지적
	A0	- 통찰과 같은 하향식 방식과 달리 개별사실들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부족하여 사실들(대상들) 간의 알맞은 관계를 형성하지 않은 한계 지적
	A-	- 상황과 개별사실들의 유연한 고려가 부족하여 왜곡이나 오해의 위험성이 높은 한계 지적
B	B+	
	B0	<자료 2>의 한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였으나 <자료 1>의 관점을 충분히 언급하지 않은 경우
	B-	
C		<자료 1>의 관점은 파악하였으나 <자료 2>의 한계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D		<자료 1>과 <자료 2>의 관점 및 한계를 모두 파악하지 못한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Part 2

〈자료 3〉 출처 : 이은주, 『통계, 학교를 말하다』

〈자료 4〉 출처 : 이문열, 『금시조』

〈자료 5〉 출처 : <○○출판사>, 고등학교 『국어』

〈자료 3〉, 〈자료 4〉, 〈자료 5〉의 요지

〈자료 3〉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기대가 교사, 학부모, 학생 집단이 다름을 보여주는 표이다. 교사 집단은 '도덕성'을, 학부모 집단은 '기본 지식'을 학교급과 상관없이 학교 교육목표의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학생 집단만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학부모 집단과 같은 선호도를 보이다가 고등학교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집단과는 전혀 다르게 '개성과 창조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료 4〉 서화에 대한 사제 간의 관점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스승인 석담 선생은 서화에서 도(道)를 예(藝)나 법(法)보다 우선이며, 이 둘을 아울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에 제자인 고죽은 이러한 스승의 생각에 반하며 수레와 소에 빗대어 예(藝)가 먼저고 도(道)가 뒤라는 입장 차이를 보여준다.

〈자료 5〉 (가)에서는 한글이 문자 창제 과정과 원리가 밝혀진 문자임을 밝히며, 자음의 기본자나 모음의 제자 원리를 설명하며 다른 언어와 구별되는 한글의 특성으로 ‘독창성’을 말하고 있다. (나)에서는 창제자가 개별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성을 발휘한 한글의 특성을 초성·중성·종성 체계, 철학, 사상, 음운학 이론, 각종 문자 자료 등을 언급하며 밝히고 있다.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가치관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평가지침

성격이 다른 두 자료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갖고 비교 분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것이 이 평가의 목적이다. 특히 같은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 다른 성격의 자료를 배치한 것은 본교 논술고사의 특징인 ‘융합적 사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함이다.

비교·분석하는 문제의 특징상 먼저 기준을 잘 세웠는지 여부가 평가의 가장 큰 지침이 된다. 〈자료 3〉과 〈자료 4〉는 ‘중시하는 가치’와 ‘가치관의 변화 여부’라는 기준에 따라 비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면 된다.

기준	지문3	지문4	비교 내용
중시 가치 (본질)	교사	석담 선생	- 교사 집단은 (교육의 본질인) 도덕성을 중시함 - 석담 선생은 (예술의 본질인) 도(道)를 중시함
	학생, 학부모	고죽	- 학생과 학부모 집단은 도덕성 이외의 교육목표(기본 지식, 개성과 창조성)를 더 중시함 - 고죽은 도(道)보다는 예(藝)를 더 중시함
변화 여부 (일관성)	교사, 학부모	석담 선생, 고죽	- 교사나 학부모 집단은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도덕성’과 ‘기본 지식’으로 같음 - 석담 선생과 고죽은 각각 ‘도(道)’와 ‘예(藝)’를 일관되게 최우선으로 삼음
	학생		- 학생 집단은 각 학교급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이 일관되지 않음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 비교 기준인 '중시하는 가치'와 '가치관의 변화 여부'를 제시해야 함
	A0	- '중시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할 때는 '도덕성(교사 집단)과 도(석담 선생) vs 도덕성 외 가치(학부모, 학생 집단)와 예(고죽)에 대응됨을 설명해야 함
	A-	- '가치관의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할 때는 '일관됨 vs 변화함'을 내용 요소로 하여 각각 '교사(도덕성), 학부모 집단(기본 지식), 석담 선생(도), 고죽(예) vs 학생 집단(기본 지식-개성과 창조성)에 대응됨을 설명해야 함
B	B+	두 가지 비교 기준을 정확히 제시하였으나, 세부 내용이 일부 부정확한 경우
	B0	
	B-	
C		두 가지 비교 기준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제시한 경우
D		두 가지 비교 기준 중 한 가지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세부 내용이 일부 부정확한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4

〈자료 3〉의 설문조사 결과 전반에 대해 〈자료 5-가〉의 주된 가치에 입각하여 해석한 후, 〈자료 5-나〉의 주제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을 다수 의견 중시의 원칙하에 초·중·고별로 추론해 보시오. (500자 내외, 210점)

평가지침

자료의 성격이 다른 두 제시문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적용 및 추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함이 이 평가의 목적이다. 각각의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른 상황이나 영역에 해당 지식, 내용, 자세 등을 적용하여 추론해 봄으로써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전반에 대해 해석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자료 5-가〉의 주된 가치인 '독창성'에 입각하여 해석한다면 범위를 좁힐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자료 5-나〉의 주제는 '창제자가 통합성을 발휘하다'인데, 이를 〈자료 3〉 표에서 초·중·고에서 다수 의견을 찾아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교육목표를 통합하여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 각 집단별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교육목표를 기술하되, 학생 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 때와는 달리 고등학교 때 '개성과 창조성'을 가장 우선순위로 둔 점을 명시해야 함 (기본 지식 46%, 도덕성 61%로 감소하나 개성과 창조성 240%로 증가함) - <자료 5-가>의 주된 가치인 '독창성'을 학생 집단의 '개성과 창조성'과 연관지어 설명해야 함
A A0	- <자료 5-나>의 주제가 '통합성'으로 초점화되어 있다는 점을 밝혀야 함 - 다수 의견 중시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 <자료 3>의 표에서 초·중·고별로 설문결과를 종합하여 '기본지식', '도덕성', '개성과 창조성'순으로 나온 사실을 적시해야 함(초등학교 144%, 중학교 131%, 고등학교 116%로 '기본 지식'항목을 가장 많이 선택한 것으로 밝혀야 함)
A-	- <자료 5-나>의 통합성을 근거로 하여, 교육목표에 대한 다수 의견이 '기본 지식'인 점을 고려하여 교육목표를 '기본 지식'을 중심으로 다른 요소들을 통합하여 제시해야 바람직하다는 것을 서술해야 함
B+ B0	논리적인 흐름은 괜찮으나 다음 사항 중 한 가지가 빠진 경우 - 설문조사 결과 전반에 대한 제시 - <자료 5-가>의 주된 가치 제시: 독창성(창조성) - <자료 5-나>의 주제 또는 핵심어 제시: 통합성
B-	- 초·중·고별로 통계를 종합한 결과 제시: '기본지식', '도덕성', '개성과 창조성'순으로 나옴
C	해석한 부분과 적용·추론하는 부분의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 문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음
D	해석한 부분과 적용·추론하는 부분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 - 문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I)

Part 1

〈자료 1〉 출처 : Education Portal 외

〈자료 2〉 출처 : Robert Tauber, *Self-Fulfilling Prophecy*; 〈○○출판사〉, 고등학교 『사회·문화』

〈자료 1〉의 우리말 번역

셀리그만과 메이어는 실험에서 두 그룹의 개들을 줄에 묶어 두었다. 첫 번째 그룹의 개들에게 전기 충격을 주면서 의도적으로 고통을 느끼게 했는데, 이 충격은 개가 레버를 누르면 멈추게 된다. 두 번째 그룹의 개들도 같은 강도와 같은 시간 동안 전기 충격을 받았는데, 레버를 눌러도 충격이 멈추지 않는다. 이 그룹의 개들에게 그 충격은 피할 수 없는 충격이라는 것이 명백했다. 첫 번째 그룹의 개들은 이 경험에서 빠르게 회복된 반면, 두 번째 그룹의 개들은 무기력을 학습했고, 만성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들을 보였다.

셀리그만은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라 했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는 동안에 무언가를 해내기 위한 반복된 시도가 실패를 거듭한 후에, 성공은 통제 밖에 있으며 자신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뇌가 학습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에 빠지게 되면, 통제가 가능한 유사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더라도 희망과 노력을 포기하게 된다. 즉, 학습된 무기력 상태가 된다.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

〈자료 1〉 실험그룹 1의 개는 레버를 누르면 전기 충격이 중단되는 것을 학습하였고, 그룹 2의 개는 동일한 전기 충격이 가해지나 스스로는 어떤 반응으로도 이를 통제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그룹 2의 개들은 무기력을 학습했고, 만성 우울증과 유사한 증상들을 보였다.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다.



〈자료 2〉 ‘피그말리온 효과’로 알려진 하버드 대학의 로젠탈 교수의 연구 결과를 소개한 글이다. 쥐를 대상으로 한 미로 통과 실험에서 연구자가 쥐들을 얼마나 우호적으로 다루었는지에 따라 쥐들의 학습 성과가 달라지며, 교육현장에서 학생을 대할 때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남을 말하고 있다. 이 실험의 의미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학생에게 긍정적인 학습 성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평가지침

두 〈자료〉에서 ‘학습된 무기력’과 ‘피그말리온’ 효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200자 내외로 요약하여야 하며 핵심어를 추출하여 서술하여야 하며 이를 간명한 서술로 연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학습된 무기력’에 대한 영어 자료는 현재 고등학교 교과과정 영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편집, 윤색했다. 분량도 200단어 내외여서 의미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는 글이다. 〈자료 2〉의 피그말리온 효과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내용으로 큰 어려움 없이 주제를 파악하고 요지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채점 시에는 정확한 요지파악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는 100자 내외의 상당히 짧은 서술이 할당되므로 표현력이나 논리적인 구성력을 보기보다는 핵심논지를 적절히 추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배점의 기준이 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여, 각 자료의 요지를 명확하게 서술한 것
	A0	
	A-	
B	B+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였으나, 각 자료의 요지를 다소 불명확하게 서술한 것
	B0	
	B-	
C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각 자료의 요지를 적절히 서술하지 못한 것
D		핵심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였고, 각 자료의 요지를 서술하지 못한 것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2

〈자료 1〉의 내용에 근거하여 〈자료 2〉에 제시된 효과의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평가지침

수험생은 표현력보다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를 보여 주어야 한다. 〈자료 1〉의 학습된 무기력의 내용과 〈자료 2〉의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둘 간의 상관관계를 논리적인 서술로 연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자료 2〉에 제시된 효과의 한계를 〈자료 1〉에 근거하여 지적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학습된 무력감에 빠진 피험자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드러나 있어야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학습된 무기력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반복되는 시도가 실패를 거듭할” 경우 생겨난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한 대상의 경우 〈자료 2〉의 효과가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 영어 자료에 대한 정확한 이해
	A0	- 학습된 무기력과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이해 여부
	A-	- 학습된 무기력에 빠진 피험자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여부 이런 상황에 처한 대상의 경우 〈자료 2〉의 효과가 제한적임을 지적
B	B+	〈자료 1〉과 〈자료 2〉의 기본적인 개념과 내용은 정확히 파악하였으나 〈자료 1〉의 실험 내용에 대한 깊은 이해는 부족한 상태로 답안을 작성한 경우
	B0	
	B-	
C		〈자료 1〉과 〈자료 2〉의 개념과 효과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D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Part 2

〈자료 3〉 출처 : Lois Tyson, *Critical Theory Today*

〈자료 4〉 출처 : George Lakoff, *Thinking Points*; B. Heine & H. Narrog (eds.),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Analysis*

〈자료 5〉 출처 : W. Chase & H. Simon, *Perception in Chess*; B. Baars & N. Gage, *Cognition, Brain and Consciousness*

〈자료 3〉, 〈자료 4〉, 〈자료 5〉의 요지

〈자료 3〉 문학작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특정한 이론적 틀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란 없다. 때로 문학작품에 행해지는 해석이 전적으로 개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그 해석에 깔린 인식의 틀이 우리 문화에 너무나 깊이 스며든 나머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일 뿐이다. 일단 비평이론에 익숙해지고 나면,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된다. 이론을 통해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즐기고 평가하는 능력도 더 향상되는 것이다.

〈자료 4〉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언어 현상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수 있고, 어떠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한다. 하지만 연구 대상 언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피해야 할 편견임을 유념해야 한다. 언어학자는 언어 자료와 합리적 사유에만 의거해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현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자료 5〉 체스 명인은 체스판 위의 말들을 5초 정도만 봐도 그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낸다. 체이스와 사이먼에 따르면, 체스 명인이 말의 위치를 기억해 복원해내는 것은 게임 중 말들이 체스판 위에서 그룹을 지으며 만들어가는 구조를 인지하는 능력 때문이다. 왜냐하면 체스판 위의 말들을 무작위로 배열할 경우에는, 체스 명인 또한 보통 사람처럼 말의 위치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프레임에 대한 태도의 측면에서 비교분석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평가지침

제시된 자료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는 ‘프레임(틀)’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료 3〉에서는 프레임의 긍정적 효과를, 〈자료 4〉에서는 프레임의 부정적 효과를 읽어내어 자료로부터 찾아낸 근거를 논술하는 것이다.

채점의 요소를 표의 형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자료 3〉	〈자료 4〉
프레임에 대한 태도	프레임의 불가피성: 문학 비평에 대해 특정한 이론적 프레임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란 없다고 주장	프레임의 극복가능성: 연구 대상 언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싶다면,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피해야 할 편견이며, 문법 이론에 대해 프레임 없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
근거	<p>프레임의 장점을 본문에서 열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레임을 통해 인간의 경험과 온갖 사상 세계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생김 - 프레임을 통해 문학작품에 담긴 강렬한 밀도와 다채로운 짜임새, 의미의 미묘한 차이들을 한층 더 음미할 수 있음 - 프레임을 통해 내가 읽는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그것을 즐기고 평가하는 능력도 더 향상됨 - 일단 비평이론 프레임(틀)에 익숙해지고 나면,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됨 	<p>프레임의 단점을 본문에서 열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법 프레임은 언어 현상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수 있고, 어떠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함 - 이런 기대감으로부터 일단 편견이 만들어지면 그 제약에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려움
기타: 본문을 인용한 대안의 제시		프레임을 버림으로써 언어 자료와 합리적 사유에만 의거해 지금껏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현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김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아래 요소가 답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①〈자료 3〉과〈자료 4〉의 공통 주제: 프레임 ②〈자료 3〉의 태도: 긍정 ③〈자료 4〉의 태도: 부정 ④〈자료 3〉의 태도에 대한 근거: 위 [평가지침] 참조 ⑤〈자료 4〉의 태도에 대한 근거: 위 [평가지침] 참조
	A0	* 판정 기준: A+: 위 5가지 요소가 모두 언급되었으며, 위 [평가지침]에 나오는 근거를 충분히 다양하게 언급했음 A0: 위 5가지 요소가 모두 언급되었으나 위 [평가지침]에 나오는 근거를 일부 불충분하게 언급했음
	A-	A-: 위 5가지 요소 중 1가지가 빠졌으며, 위 [평가지침]에 나오는 근거를 일부 불충분하게 언급했음 *〈자료 4〉의 경우 '본문을 인용한 대안 제시 (위 [평가 지침] 참조)까지 언급하면 가산점을 부여함
	B+	
B	B0	* 판정 기준: 위 5가지 요소 중 2~4개가 빠졌으며, 위 [평가지침]에 나오는 근거를 대체적으로 불충분하게 언급했음
	B-	
C		문학 비평의 장단점과 문법 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의견만을 기술했음
D		프레임을 언급은 하였으나, 문학 비평이나 문법 이론 등에 연결시키지 못함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4

〈자료 3〉을 활용하여 〈자료 5〉에 제시된 체이스와 사이먼의 주장을 그래프의 수치를 근거로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평가지침

이 문제의 핵심은 ① ‘훈련을 통해’ ② 전문가 프레임을 획득하게 되면, ③ (문학 작품과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해 ‘다채로운 짜임새’를 파악하고,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파악한 뒤, 이 능력을 체이스와 사이먼의 실험 결과에서 읽어내는 것이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 아래 요소가 답에 모두 포함되어야 함 ① 〈자료 3〉의 핵심: (전문가적) 프레임의 장점 (위 [평가지침] 참조) ② 체이스와 사이먼의 실험: ‘무작위 상황’에서 체스 명인과 비전문가의 점수가 비슷한 점을 수치를 인용하여 분석 (→ 그루트의 가설에 대한 반박) ③ 체이스와 사이먼의 실험: ‘게임 상황’에서 체스 명인의 점수가 탁월함을 수치를 인용하며 분석
A A0	④ 전문성의 수준과 복원한 말의 개수가 비례함을 수치를 인용하여 지적
A-	* 판정 기준: 위 4가지 기준 중 ②, ③, ④는 반드시 수치를 인용하여 서술해야함 A+: 위 4가지 요소가 도표의 수치를 인용하여 모두 언급되었으며, 전문가 프레임이 ‘훈련을 통해’ 획득된다는 〈자료 3〉의 내용까지 포함시켜 정합성 있게 논술 A0: 위 4가지 요소가 도표의 수치를 인용하여 모두 언급되었음 A-: 위 4가지 요소 중 3가지를 도표의 수치를 인용하여 언급함
B B+ B0 B-	* 판정 기준: 위 4가지 요소 중 2~3개를 언급하였으나 도표의 수치인용이 부실한 정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점수 부여
C	* 판정 기준: 위 4가지 요소 중 1개 정도를 언급하였으며, 도표의 적절한 수치인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D	체이스와 사이먼의 실험을 언급은 하였으나, 실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V)

Part 1

〈자료 1〉 출처 : Virginia Heffernan, *New York Times*(2011. 08. 07)을 바탕으로 작성

〈자료 2〉 출처 : Neil Postman, *Virtual Students, Digital Classman*을 바탕으로 작성

〈자료 2〉의 우리말 번역

컴퓨터 및 이와 관련되는 기술은 현대 문명의 환상적인 확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모든 주요 신기술이 그랬던 것처럼, 현대의 신기술도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관한 논란이 있다. 21세기가 되었는데도, 사람들은 이 신기술을 마치 신이 내린 은총인 것처럼 여기는 점은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연소기관 엔진이 인간에게 주고 있는 혜택과 폐해를 잊었던 말인가? 텔레비전이 인간에게 준 혜택과 폐해가 무엇이었던가? 컴퓨터 기술이라는 것이 주된 일의 동기가 되고 사람을 지배하는 권위로 작용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안정시키는 심리적인 자양분이 될 때, 적어도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해 봐야 한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은 과연 인간의 판단보다 기계의 계산력에 더 감동하게 될 것인가? 응답의 속도가 지능을 정의하는 시대가 온 것인가? 가상현실이 사람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치유법이라도 된 것인가?

로버트 풀검(Robert Fulghum)은 최근 저서에서 신기술의 주창자들이 간과하고 생략해버린 가치들을 잘 요약하고 있다. 즉, 모든 것을 나누어 갖고, 공평하게 놀고,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며, 가지고 논 것은 제자리에 갖다놓고, 어질러 놓은 건 치우고,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할 것 등이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러한 사회적인 가치들을 학생들이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에는 몇 해가 걸린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학생들을 그들이 원하는 학습 환경에서만 교육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이유로, 학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학교의 공간에 있어야 하고, 수업 중 발언하고 싶을 때 손을 들어야 하며, 타인이 얘기중일 때는 끼어들지 않고, 수업 중에 껌을 씹어서는 안 되며, 벨이 울릴 때까지 나갈 수 없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등의 특정한 규칙을 지키도록 학교가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문명화된 인간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불린다. 전지전능한 신기술이 이러한 학교의 기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적어도 신기술의 미덕이 강조되었을 때 이런 기능과 관련되는 내용은 흔적도 보이지 않는다.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

〈자료 1〉 〈자료 1〉에서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교실도 디지털 가상공간의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과 속도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자료 2〉 〈자료 2〉에서는 신기술의 무조건적인 도입을 경계하고, 근본적인 인간성의 확립에 바탕을 둔 사회적인 가치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평가지침

이 문제는 미래 교육현장에서 컴퓨터 및 관련 디지털 신기술의 수용 여부에 대한 태도를 논의한 〈자료 1〉과 〈자료 2〉의 상반된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따라서 답안을 작성할 때 〈자료 1〉의 내용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의 타당성을 인정하되 〈자료 2〉에 나타난 ‘아날로그 교육환경의 필요성’, ‘사회적 가치’ 및 ‘인간성의 확립’ 등을 근거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여야 한다.

이 문제는 핵심논제와 이에 대한 두 자료의 입장을 중심으로 200자 이내로 표현하기를 요하므로 문장의 수려함보다는 간결하게 중심내용을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디지털 문화, 신기술, 아날로그 문화, 미래의 교육현장, 사회적인 가치, 인간성의 확립 등의 핵심어 또는 이에 준하는 유사어가 사용되어 있고, 두 자료의 입장 차이가 간명하게 표현되었는지가 평가의 핵심이 되며, 두 자료의 자세한 비교 분석까지 진행될 필요는 없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 <자료 1>과 <자료 2>가 연계되어야 함
	A0	-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된 핵심어 또는 이의 유사어가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함
	A-	- 두 자료의 상반된 입장이 표현되어야 함 - 자신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기술해야 함
B	B+	- 핵심어를 사용하여 논제를 파악하였으나 <자료 1>과 <자료 2> 중 한쪽의 주장에 과도하게 치중함
	B0	- 요지를 파악하였으나 적절한 핵심어를 사용하지 못함
	B-	- 논제를 일부만 파악하고 적절한 요지의 서술을 못함
C		- <자료 1>과 <자료 2>의 차이점을 파악하지 못함
D		- 일부 관련된 내용을 서술하였으나 핵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도 잘못 파악함
F		-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2

<자료 2>에 근거하여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

<자료 1>에서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교실도 디지털 가상공간의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과 속도에 부응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반하여 <자료 2>에서는 신기술의 무조건적인 도입을 경계하고, 근본적인 인간성의 확립에 바탕을 둔 사회적인 가치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평가지침

이 문제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답안의 서술에 포함하였는지를 점검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첫째, 두 지문의 서로 상반된 시각을 적절하게 파악했는지, 둘째, <자료 2>에 나타난 주장의 요지를 중심으로 <자료 1>의 주장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이를 서술했는지, 셋째, <자료 1>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지는 않고 그것의 장점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였는지 등이다.

시대적 변화를 이끄는 디지털 문화와 신기술을 교육현장에 적용시키는 데 대한 공통된

논제에 대해 <자료 1>의 적극적인 수용 자세와 <자료 2>의 제한적인 수용 및 경계를 대비하여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사회적인 가치, 인간성의 확립과 같은 핵심어들이 사용되어 학교 및 교실로 대변되는 교육현장에서 아날로그 형식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자료 2>의 입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답안이 두 자료의 상반된 입장을 파악하여 기술하더라도 한쪽의 입장에만 치우친 주관적인 주장으로 마친다면 감점요인이 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 서술함 - <자료 1>과 <자료 2>가 연계되어야 함 - 디지털 번성, 신기술의 역할, 사회적인 가치, 인간성의 확립 등의 핵심어 또는 관련 동어가 언급되어야 함
	A0	- 디지털 문화, 신기술에 대한 장점이 논의되어야 함 - 디지털 문화, 신기술의 한계가 지적되어야 함 - 한계를 지적하는 이유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함
	A-	- 변화된 현실에 대한 양면적 인식과 평가, 즉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견해가 필요함
B	B+	- 적절한 형식을 갖추어 서술함
	B0	- <자료 1>과 <자료 2>의 시각의 차이를 올바르게 파악하였으나 <자료 1>의 취지, 장점을 무시하거나 간과함
	B-	- 적절하지 못한 예시를 통해 서술의 초점이 흐려짐
C		논제에 대한 서술을 하였지만, <자료 1>과 <자료 2>의 시각의 차이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함
D		관련된 서술을 일부 하였으나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하여 논제에 대한 언급이 없음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Part 2

〈자료 3〉 출처 : ○○경제연구원, 『당신은 중산층입니까?』

〈자료 4〉 출처 : 최양규, 『조음위치에 관한 시각정보가 말소리 지각에 미치는 영향』

〈자료 5〉 출처 : 한용운, 『만족』

〈자료 3〉, 〈자료 4〉, 〈자료 5〉의 요지

〈자료 3〉 〈자료 3〉은 소득기준 OECD 계층과 설문에서 나타난 체감 계층의 불일치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고소득층의 0.8%만이 스스로 고소득층이라 생각하고, 나머지 22.7%와 7.4%는 각각 중산층, 저소득층으로 생각한다. 공식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괴리는 더욱 심각하다. OECD 기준 중산층에서 스스로를 중산층이라 생각하는 경우는 45.1%에 불과하며, 나머지 55%는 자신을 저소득층이라 여긴다. 반면, OECD 기준 저소득층 7.3% 중 17.8%(전체의 1.3%)는 스스로 중산층이라 여긴다. 〈자료 3〉은 객관적인 소득분류와 주관적 체감 사이에 괴리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각 경제적 계층의 상대적 박탈감,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불만족도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OECD는 소득수준만으로 계층을 정의한 반면, 국민들은 소득 수준뿐만 아니라 자산 수준, 삶의 질, 사회적 기여와 시민의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층을 정의하기 때문이다.

〈자료 4〉 언어사용자는 말소리를 지각하는 과정에서 청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입모양과 같은 시각 정보도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맥거크 효과(McGurk effect)는 바로 이와 같은 말소리 지각의 특성을 활용해 시각정보와 청각정보의 불일치 현상을 조명하고, 이 과정에서 말소리 지각의 주관적 해석을 다루었다.

〈자료 5〉 〈자료 5〉는 한용운의 시작품인 「만족」인데, 시적 화자는 세상과 인생에 만족이 있는지를 묻고 있다. 그러면서 만족이라는 것이 부단히 추구되는 성격의 것이어서 늘 자신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앞에 높임으로 결코 충족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화자의 결론은 만족이라는 것이 어리석은 이나 성인의 주관적인 것이거나 약자의 기대일 뿐이라는 것이다. 결국 화자는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차라리 현재와 과거를 긍정/만족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넷째 연에서는 (주관적인 또는 깨우침으로서의) 만족을 얻었다고 한다.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객관적 현상과 주관적 판단의 불일치’라는 측면에서 비교·분석 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평가지침

〈자료 3〉과 〈자료 4〉는 공통적으로 객관적 현상과 주관적 판단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료 3〉의 OECD 계층과 체감 계층의 불일치와 〈자료 4〉의 음성 및 입술 모양의 말소리 정보와 지각된 말소리 정보 간의 불일치를 비교하여 논술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초점은 〈자료 3〉의 계층별로 나타나는 ‘공식 계층과 체감 계층 간의 불일치’를 수치와 함께 빠짐없이 기술하는 동시에, 〈자료 4〉의 맥거크 효과의 말소리 예시를 포함해야 한다. 맥거크효과의 한국, 중국, 일본인과 미국인의 차이를 추가적으로 언급해도 감점하지 아니한다.

구분	객관적 현상	주관적 판단
자료 3	1) OECD 기준 고소득층(30.8%)	그 중 73.7%(전체의 22.7%)는 스스로 중산층으로 생각함
	2) OECD 기준 고소득층(30.8%)	그 중 24.0%(전체의 7.4%)는 스스로 저소득층으로 생각함
	3) OECD 기준 중산층(61.5%)	그 중 54.9%(전체의 34%)는 스스로 저소득층으로 생각함
	4) OECD 기준 저소득층(7.3%)	그 중 17.8%(전체의 1.3%)는 스스로 중산층으로 생각함
자료 4	5) 들리는 음성신호 ‘바’	지각된 ‘다’
	6) 보이는 영상신호 ‘가’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자료 3〉의 각 계층별 4가지 불일치 항목을 모든 수치(계층별 비중 및 전체 대비)와 함께 빠짐없이 기술하고, 〈자료 4〉의 음성신호 '바' 소리, 보이는 영상신호 '가' 지각되는 '다'를 기술한 경우 A+로 판정함
	A0	〈자료 3〉의 계층별 4가지 불일치를 기술하되, 계층별 비중 또는 전체 대비 비중 수치 중 어느 한쪽만 기술하고, 〈자료 4〉의 불일치를 기술한 경우, A0 또는 A-로 판정함
	A-	
B	B+	〈자료 3〉의 계층별 4가지 불일치 중 수치없이 4개 항목을 기술하고, 〈자료 4〉의 불일치를 기술한 경우, 그 논리전개에 따라 B+, B0, B-로 판정함
	B0	
	B-	
C		〈자료 3〉의 계층별 4가지 불일치 중 1-2개 항목을 생략하거나 기술하고, 〈자료 4〉의 불일치를 기술한 경우, 그 논리전개에 따라 C+, C0, C-로 판정함
D		불일치의 포괄적인 의견을 기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주어진 자료와 최소한의 논리적 연관성을 거의 갖지 않는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4

〈자료 5〉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료 3〉의 현상을 해석·추론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평가지침

[문제 4] 답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자료 5〉시작품 화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언급되어야 한다. 둘째, 〈자료 5〉시작품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료 3〉에 제시된 현상을 해석하고 추론해야 한다. 셋째, 앞에 해석하고 추론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첫째, 〈자료 5〉시작품 화자의 태도가 무엇인지 언급해야 함. 화자는 현재와 과거를 긍정하고 만족하고자 함 둘째, 〈자료 5〉시작품 화자의 태도를 바탕으로 〈자료 3〉에 제시된 현상을 해석하고 추론해야 함. 〈자료 3〉표는 OECD 기준 계층이라는 객관적 지표와 그 기준 계층 구성원들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계층 간의 괴리 현상을 보여주는 것임. 고소득층은 OECD 기준 30.8% 가운데 0.8%, 중산층은 61.9% 가운데 27.9% 만이 자신의 상태에 만족함. 곧 고소득층의 31.1%, 중산층의 34%가 불만족하고 있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OECD 기준 7.3%에서 6%가 자신을 저소득층으로 체감. 저소득층의 1.3%만이 자신의 객관적 계층보다 높은 중산층으로 체감하는 만족을 드러냄
A A0	셋째, 앞에 해석하고 추론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 많은 근거가 가능. 예를 들면, OECD 기준 지표를 추출할 때 부채 같은 것이 산정되지 않아 실제 많은 부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계층을 낮게 체감할 수 있음. 또는 객관적 지표로는 저소득층이지만 인생관이나 생활 태도 등에 따라서 주관적으로는 높은 계층으로 체감할 수 있음 앞 내용이 모두 포함되었으나 불명료하거나 근거의 타당성이 낮을 경우, 구성과 전개가 미흡한 경우, 어법 등이 부정확할 경우 등을 고려하여 그 정도에 따라 A0나 A로 하향
A-	
B B+ B0 B-	앞 A항에 언급한 세 가지 내용 가운데 하나를 빠뜨렸거나 세 가지 내용을 썼으나 전반적으로 부정확하고 모호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B+, B0, B-를 부여
C	앞 A항 가운데 하나를 빠뜨리고 나머지를 썼으나 그것이 틀렸거나 불명료한 경우
D	앞 A항에 언급한 세 가지 내용을 썼으나 〈자료 5〉화자의 태도를 잘못 이해하고, 〈자료 3〉의 현상을 잘못 해석하고 그에 기반하여 엉뚱한 추론을 한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11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예시답안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

문제 1

(200자 내외)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 논제는 ‘거리와 도덕 감정(연민, 죄책감) 간의 관계’이다. 〈자료 1〉은 인용문을 통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인간이 타인에게 느끼는 이런 감정이 약화된다고 본다. 반면, 〈자료 2〉는 ‘인류애적 관점’을 견지한다. 〈자료 2〉의 인물은 비록 지구 반대편의 것이라 해도 어린 아이의 고통이 존재한다면 신이 창조한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한다.

문제 2

(500자 내외)

〈자료 1〉과 〈자료 2〉는 거리와 도덕 감정(연민, 죄책감) 간의 관계를 보는 상반된 입장을 보여준다. 〈자료 2〉의 등장인물은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어린 아이의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이 고통은 ‘지표면에서부터 중심부에까지 이 땅을 흠뻑 적시고 있는’ ‘인류 전반의 고통’을 말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는 ‘궁극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한 인류의 운명의 건물’을 세우는데 ‘단 한 명의 어린 아이의 고통’이라도 요구된다면 그 건축물을 거부하겠다고 말한다. 이런 ‘인류애적 입장’에 입각하게 되면, 지구 반대편의 고통은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자료 2〉의 입장에 근거하면,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인간이 느끼는 연민이나 죄의식의 감정을 약화시킨다는 〈자료 1〉의 견해는 옳지 못하다. 도덕, 즉 타인을 향한 연민과 죄의식은 거리와 상관없이 윤리적 당위의 입장에서 접근되어야만 한다.

문제 3

(400자 내외)

〈자료 3〉의 “인간과 시민”은 천부인권과 법 앞의 평등을 내세워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한 부르주아로 사회 구성원 전체가 아니라 사유재산을 자연권으로 전제하는 재산소유자를 전제한다. 〈자료 4〉에서 피험 아동 응답의 전제는 쉐리는 앤이 구슬의 위치를 옮긴 것을 모른다는 것이다. 전제가 바뀔 경우 〈자료 3〉에서는 완전한 평등주의 사회와 민주주의 사회가 이루어지고, 재산소유자 중심의 과두정치가 해소될 것이, 그리고 〈자료 4〉에서는 피험 아동이 쉐리가 구슬을 찾기 위해 상자를 열 것이라는 점이 예상될 수 있다.

문제 4

(500자 내외)

제시된 표에서 2010년 현재 중국어 인터넷 사용자 수가 4억 8백만 명으로 영어 인터넷 사용자 4억 9천6백만 명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2000년과 2009년 사이 영어(252%)와 중국어(1,162%)의 인터넷 언어 성장률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으며, 중국어가 영어보다 4.6배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인터넷 상에서 조만간 중국어가 영어보다 더 많이 사용될 것임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예측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전제, 즉 인터넷 사용자 수를 통해 인터넷 언어를 파악할 수 있음에는 문제가 있다. 인터넷 언어를 단순히 인터넷 사용자 수만을 가지고 확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인터넷 언어는 사용자 수뿐만이 아니라, 해당 언어로 운영되는 사이트 수, 해당 언어로 작성된 오리지널 말뭉치, 인터넷 사용자 별 사용 빈도와 시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판단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할 때, 인터넷 언어 순위는 저자의 예측과 다르게 변할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저자의 예측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

문제 1

(200자 내외)

〈자료 1〉은 게슈탈트 심리학과 통찰을 중심으로 하향식 사고방식을 주장한다. 이에 따라 사고과정에서 객관적인 개별사실들에만 집중하지 않고 기존 지식이나 상황을 바탕으로 개별사실들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강조한다. 반면, 〈자료 2〉는 기존지식 혹은 경험을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고정관념을 비판한다. 고정관념은 과거의 경험이나 관찰을 통해 형성된 지식이 일반화되어 고착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서 객관적인 정보들을 무시하고, 결국 오해나 왜곡의 가능성을 높인다.

문제 2

(500자 내외)

〈자료 2〉는 ‘쉬다’와 ‘일하다’라는 행위에 고정관념이라는 사전지식을 적용시킨다는 점에서 〈자료 1〉에서 통찰을 통해 바나나와 상자의 관계를 만들어 내는 하향식 문제해결과 일견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자료 1〉의 관점에서 볼 때 〈자료 2〉의 고정관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그 한계를 보인다. 첫째, 〈자료 1〉에서 통찰과 같은 하향식의 사고과정이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고려하고 있다면 〈자료 2〉의 고정관념이나 확증편향은 반대로 상황을 무시함으로써 오류나 왜곡의 가능성을 낳고 있다. 둘째, 〈자료 1〉에서 통찰을 통해 개별사실들(바나나와 상자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는 반면에, 〈자료 2〉의 경우 사전지식의 편의성 및 효율성에 과도하게 의지함으로써 개별사실들에 대해 충분하고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자료 1〉의 하향식 문제해결은 개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처로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지만, 〈자료 2〉의 고정관념은 이와 같은 중간과정의 부재로 왜곡이나 오해의 위험성을 가중시킨다.

문제 3

(400자 내외)

〈자료 3〉과 〈자료 4〉는 중시하는 가치관의 내용과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 먼저 내용을 비교하면, 교사 집단과 석담 선생은 본질적 측면을 중시 여겨 교사는 교육의 본질인 ‘도덕성’, 석담 선생은 예술의 본질인 ‘도’를 중시한다. 이에 반해 학생 및 학부모 집단은 교육의 본질인 ‘도덕성’ 이외의 다른 내용을 더 중시하고, 고죽도 예술의 본질인 ‘도’보다 ‘예’를 더 중시한다. 다음으로 가치관의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교사 및 학부모 집단은 학교급에 상관없이 각각 ‘도덕성’, ‘기본 지식’을 일관되게 최우선으로 뽑는데,

이는 석담 선생과 고죽이 각각 ‘도’와 ‘예’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과 같다. 다만 학생 집단만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부모 집단과 같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개성과 창조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문제 4

(500자 내외)

〈자료 3〉의 설문조사 결과는 학교 교육목표에 대한 각 집단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교사와 학부모 집단은 과반수가 넘게 학교급과 상관없이 각각 ‘도덕성’과 ‘기본 지식’을 선택했다. 학생 집단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 학부모와 같은 반응을 보였지만, 고등학생의 경우 ‘기본지식’이나 ‘도덕성’보다 ‘개성과 창조성’을 중시했다. 교사와 학부모와는 달리, 학생들은 〈자료 5-가〉에서 언급된 한글의 특성으로 말한 ‘독창성’ 즉 ‘개성과 창조성’의 가치를 상급학교일수록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급별로 각 교육목표에 대한 응답을 모두 합하면 초, 중, 고 모두 일관되게 ‘기본 지식’, ‘도덕성’, ‘개성과 창조성’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난다. 따라서 학교 교육목표의 바람직한 방향은 다수 의견인 ‘기본 지식’을 중심으로 〈자료 5-나〉에서 언급한 ‘통합성’을 반영하여, ‘도덕성’, ‘개성과 창조성’의 우선순위에 따라 균형 있게 설정해야 한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II)

문제 1

(200자 내외)

[문제 1]은 <자료 1>의 동물 실험을 통해 한계상황이 지속적으로 펼쳐질 때 그 상황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포기과 절망에 빠진다는 ‘학습된 무기력’의 실험 내용이다. <자료 2>에서는 동물 실험 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평범한 학생들에게 성적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그말리온 효과로서 누군가의 지속적인 격려와 기대는 타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갖게 한다는 것이다.

문제 2

(500자 내외)

<자료 1>과 <자료 2>에 대한 논지의 기본 개념은 ‘학습된 무기력’과 ‘피그말리온 효과’에 대한 실험 내용이다. <자료 1>에서는 피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으로서 학습된 무기력의 원인이 된다는 실험결과와 <자료 2>에서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와 격려가 어떤 학생에게든 성적 향상의 효과를 갖게 했다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두 실험을 통해 얻게 된 것은 어떠한 사람이라도 주변사람들로부터 지속적인 따뜻한 격려와 기대를 받게 된다면 보다 향상된 성적이나 자기 일에서의 개선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처해있는 학습된 무력감의 정도가 매우 깊고, 또 원래의 환경자체가 극도로 심각한 경우라든지 또 무력감에 빠진 이유에 대한 정확한 사전의 이해 없이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점이 <자료 2>에 제시된 효과의 한계이다.

문제 3

(400자 내외)

<자료 3>과 <자료 4>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는 ‘프레임’이다. <자료 3>은 프레임을 문학 비평에 적용하여 특정한 이론적 프레임에 근거하지 않은 해석이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프레임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서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자료 4>에서는 언어 분석에 있어 기존의 문법 프레임은 피해야 할 편견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프레임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서술했다. <자료 3>에서는 주장의 근거로 프레임을 통해 1) 인간의 경험과 온갖 사상 세계를 더욱 폭넓고 깊이 있게 사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며, 2) 문학작품에 담긴 강렬한 밀도와 다채로운 짜임새, 의미의 미묘한 차이들을 한층 더 음미할 수 있고, 3) 문학 작품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4) 그것을 즐기고 평가하는 능력도 더 향상되며, 5) 일단 비평이론에 익숙해지고 나면, 문학을 감상하는 능력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됨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자료 4>에서는 주장의 근거로 1) 문법 프레임은 언어 현상이 어떠해야 하고, 어떠할 수 있고, 어떠할 수 없는지에 대한 기대감을 형성하며, 2) 일단 편견이 만들어지면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 가산점 포인트: <자료 4>는 프레임을 버림으로써 언어 자료와 합리적 사유에만 의거해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현상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 4

(500자 내외)

<자료 3>은 ‘훈련을 통해’ 전문적 프레임을 획득했을 때, 문학 작품과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해 ‘다채로운 짜임새’를 파악하고,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료 5>에 소개된 체스 명인의 탁월한 능력은 그루트의 설명처럼 체스 명인들이 우수한 기억력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 근거로 그래프에 나오는 ‘무작위 상황’의 실험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체스판 위의 말들을 무작위로 배열한 경우, 체스 실력이 ‘하’인 사람은 평균 2.5개의 말을 복원했는데, 체스 실력이 ‘중’, ‘상’, ‘명인’인 경우에도 복원한 말의 개수는 각각 2.9, 3, 3.3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즉, 체스 명인도 ‘무작위 상황’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게임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체스판 위의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배열되며 전개되는 ‘게임 상황’에서는 체스 실력이 ‘하’, ‘중’, ‘상’, ‘명인’으로 증가할수록 복원한 말의 개수도 각각 4.8, 9, 15, 20으로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체스 명인이 오랜 ‘훈련을 통해’ 체스 게임의 전개에 대한 수많은 프레임을 획득하였음을 의미한다. 즉, 체스 명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체스 게임의 전문적 프레임을 사용하여 체스 게임의 ‘다채로운 짜임새’를 파악하고, ‘모든 것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체스판 위 말의 배치를 5초 정도만 봐도 그 구성을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이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Set IV)

문제 1

(200자 내외)

〈자료 1〉에서는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을 위해 교육 환경이 바뀌어야 하고,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함을 주장한다. 교실도 디지털 가상공간의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함을 강조한다. 이에 반하여 〈자료 2〉에서는 신기술의 무조건적인 도입을 경계하고, 근본적인 인간성의 확립에 바탕을 둔 사회적인 가치를 교육시킬 수 있는 학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문제 2

(500자 내외)

디지털 문화의 번성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교육현장인 학교도 변화를 모색할 때가 되었다. 스마트한 신기술의 편의성이나 가상공간의 효율성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교육환경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 적응된 아이들에게 고전 명작이나, 고전 명화로 대변되는 아날로그 문화를 무조건 수용하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과거의 새로운 기술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신기술도 분명히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환경에 전적으로 의존할 경우, 사회적인 가치가 결여되고 인간성이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교야말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고전적 미덕인 사회적인 가치규범이나 공동체의 개념을 가르칠 수 있는 아날로그 공간이다. 따라서 효율과 속도가 지배하는 세상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신기술의 전지전능함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같은 공간에서 질서를 지키며 서로 함께 하는 인간적인 따뜻함을 가르쳐줄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유지해야 한다.

문제 3

(400자 내외)

〈자료 3〉에서는 OECD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류한 소득계층의 분포와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소득계층의 분포 간에 불일치현상이 발견된다. 객관적인 OECD 기준 고소득층(30.8%) 가운데 73.7%(전체의 22.7%)는 중산층으로, 24.0%(전체의 7.4%)는 저소득층으로 체감하고 있으며, OECD 기준 중산층 61.9% 중 54.9%(전체의 34.0%)는 스스로를 저소득층으로 체감하고 있다. 다만 OECD 기준 저소득층 7.3% 중 약 17.8%(전체의 1.3%)만이 자신들을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을 뿐이다. 〈자료 4〉에서도

역시 객관적 현상과 주관적 판단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음성 및 입술 모양의 말소리 정보와 지각된 말소리 정보 간에 불일치 현상인 맥거크효과가 그것이다. 맥거크효과에 따르면 객관적 음성신호 “바” 소리와 보이는 영상신호 “가” 모양을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다”로 잘못 인지하게 된다.

문제 4

(500자 내외)

〈자료 5〉에 나타난 화자는, 만족은 늘 앞에 있어 얻기 어렵다고 인식하므로 불만족한 상태로 비쳐질 수 있지만 끝내는 비록 표면적이라 하더라도 만족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자료 3〉에서 OECD 기준 계층 비율은 객관적, 체감 계층 비율은 주관적 지표라고 할 때, 자료의 대각선 항목에 있는 고소득층 0.8%, 중산층 27.9%, 저소득층 6.0%, 그리고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중산층으로 체감하는 1.3%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OECD 기준 이상으로 받아들여 비교적 만족하는 계층이라 볼 수 있다(또는 1.3%만이 만족). 한편 대각선 항목 위쪽에 있는 22.7% 및 7.4%는 OECD 기준 고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으로, 또 중산층 중 절반 이상(54.7%)에 해당하는 34.0%는 스스로 저소득층이라 여기고 있어 불만족한 계층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불일치는 가치관, 생활태도, 자존감의 차이나 자산이나 부채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에만 의거하여 계층분류를 하고 있는 OECD 기준 때문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다.



12 2015학년도 모의논술 문제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시험

논 술 고 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고사장번호 () 지원모집단위 () 수험번호 () 성명 ()

유 의 사 항

1. 시험시간은 120분임.
2. 반드시 문항별 지정된 작성영역에 답안을 기재할 것.
3. 답안의 분량을 지킬 것(띄어쓰기 포함).
4. 자신을 드러내는 표시를 하지 말 것.
5. 제목을 쓰지 말 것.
6. 답안 작성은 검정색 펜만을 사용할 것.

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독일 시인 하인리히 하이네는 1863년 유럽에 처음 등장한 기차를 타본 뒤 극심한 전율과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당시 기차는 시속 30~40km에 불과했지만 마차보다 3배나 빨랐다. 주변 풍경을 음미할 여유 따위의 여행 과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목적지만 남는 것을 경험한 하이네는 “철도가 공간을 살해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철도 여행으로 상징되는 속도가 인간의 일상과 의식, 문화, 심리 전반에 미치게 될 영향을 예견한 것이다. 밀란 쿤데라는 그의 소설 『느림』에서 “자본주의와 느림은 상극이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만연은 사람에게 속도를 강요했다고 갈파했다. 19세기 이후 기계에 의한 동력이 개발되면서 사람은 ‘속도’라는 효율에 갇혀 ‘느림’의 여유를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각박해진 세상은 사람들의 걸음걸이에도 속도감을 요구한다. 사람들의 걸음 속도가 10여 년 전보다 훨씬 빨라졌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흥미롭다. 영국 허트포드셔대학 리처드 와이즈만 교수팀은 최근 세계 32개 도시 사람들의 걸음 속도를 측정한 결과 1994년 조사 때보다 평균 10%나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 60피트(약 18m)를 걷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13.76초에서 12.49초로 1초 이상 빨라진 것이다. 한편 걸음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사회·경제적 변화가 극심한 중국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용’ 국가였다. 그 중에서도 싱가포르 보행자들은 60피트를 10.55초에 걸어 세계에서 가장 빨랐다. 1994년 세계인의 걸음 속도를 측정한 캘리포니아대학 로버트 레빈 교수는 “사람은 빨리 움직일수록 다른 사람을

도와줄 가능성이 작아지며 심장 질환을 일으킬 확률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압축적인 근대화를 달성한 한국의 경우 ‘속도’에 대한 집착은 눈에 띄는 현상이다. 급속도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기도 했던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는 성장만능주의와 결합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세계 최대의 선박생산국, 세계 최대의 컴퓨터 D램 생산판매국 등 좋은 성적도 거두었지만, 동시에 전 세계 행복지수 순위 102위라는 부끄러운 결과를 얻기도 했다. 이제는 ‘한국식 속도전’의 문제점을 깨닫고 삶의 인간적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한다. 속도가 아닌 느림의 미학에 관해 다시 생각할 때다.

<○○일보> 기사 일부 수정

자료 2

One thing that distinguishes the new economy from the old one is ‘speed.’ To succeed on the digital playing field, where speed plays a critical role, global companies must move closer to fulfilling customers’ demands in real time. As such, the ability to analyze information rapidly to establish timely corporate policies is essential. Traditional hierarchical decision-making is too slow to cope with the realities of the new digital market. Most existing knowledge management and reporting systems are not geared to support high-speed business activities. To compete in a market filled with greater volatility* and uncertainty, all companies need to be nimble** and fast. Global firms, in particular, will need to speed up their business and adjust processes, strategies and business models as events unfold. In a world where markets are in perpetual flux, product development and sourcing strategies must realign more quickly. The key to success in new global economy lies in speed which enables a business to effectively deal with rapidly changing realities.

Oxford Economics, *The New Digital Economy*

* volatility: 불안정성, 변동성

** nimble: 재빠른, 민첩한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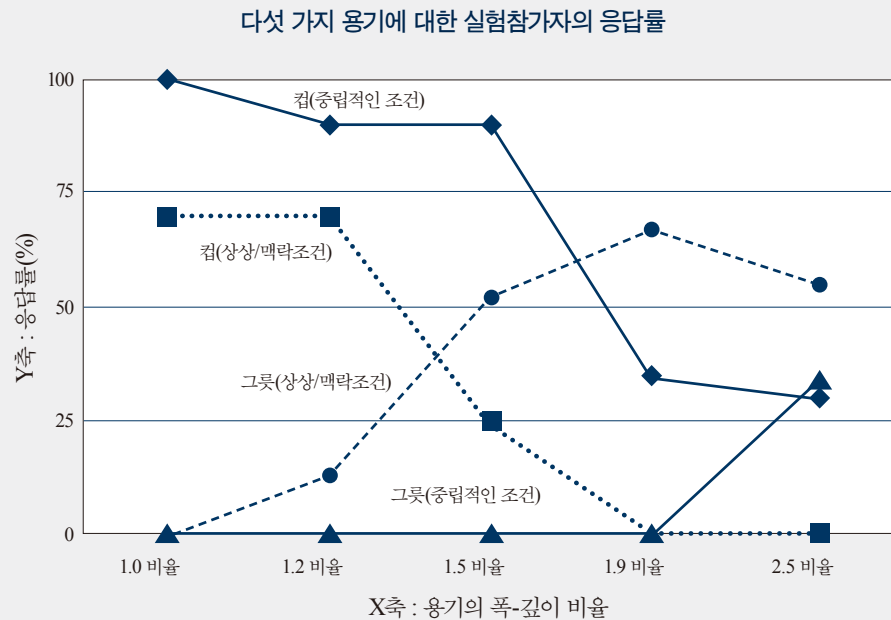
문제 2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II.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3



※ 실험참가자가 모든 문항에 응답한 것은 아님.

저명한 사회언어학자 Labov는 언어사용자들이 무엇을 ‘컵(cup)’이라 부르고 무엇을 ‘그릇(bowl)’이라 부르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두 개념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Labov는 실험참가자들에게 용기(container) 그림을 보여주고 그것이 ‘컵’인지 ‘그릇’인지 답하도록 했다. 실험에 사용된 다섯 가지 용기들은 깊이에 대한 폭의 비율(폭-깊이 비율)이 1.0에서 2.5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도록 그려졌다. 위 그래프에서 실선은 각각의 용기를 ‘컵(cup)’이라 명명한 실험참가자의 비율과 ‘그릇(bowl)’이라 명명한 실험참가자의 비율을 보여준다. 실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폭-깊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컵(cup)’이라고 대답하는 피험자의 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다. X-축의 우측 끝에 이르게 되면, 폭-깊이 비율이 2.5인데, 이때는 단지 25%의 실험참가자만 ‘컵(cup)’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림에서 점선 그래프는 실험참가자들에게 ‘용기가 탁자 위에 놓여 있고, 용기 안에 으깬 감자가 들어있다’고 상상하도록 지시한 뒤 얻은 결과를 보여준다. 상상/맥락 조건에서는 ‘컵(cup)’이라는 반응이 적어지고, ‘그릇(bowl)’이라는 반응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컵(cup)’에서 ‘그릇(bowl)’으로 응답이 점차 바뀌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국, 사물에 대한 인간의 범주화는 그 속성뿐 아니라 그 사물이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다.

John Anderson,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자료 4

한국인은 범주화 능력이 매우 탁월하다. 그 능력은 기질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인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의 나이, 고향, 출신 학교 등 신상명세에 대해 매우 궁금해 한다. 그런 기본적인 정보로 상대방을 어떤 범주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불편하다 못해 불안 증세마저 보인다.

그런 기질은 편견과 ‘편 가르기’가 발휘되는 토양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근대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속도에 대한 숭배는 체질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 ‘범주화 게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인들이 그런 독특한 기질을 갖게 된 것은 인구의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높은 인구밀도 때문이다. 이는 달리 ‘구별 짓기’를 할 것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전문가들이 무의미하다고 보는 혈액형과 성격의 관계를 진지하게 따지는 것이 가장 성행하는 나라가 일본과 한국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자연스럽게 구별 짓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구별 짓기를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내고자 하는 욕망이 범주화 게임으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어느 범주(편 또는 패거리)에도 속하지 않은 채 홀로 살아간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강준만, 『한국인의 범주화 기질과 본질주의 성향』



자료 5

많은 학생과 회사원은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사업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꿈꾼다. 그들은 “마이클 델이 기숙사 방에서 델컴퓨터라는 회사를 시작해 텍사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나도 그러한 일을 못하겠는가?”라고 생각한다. 델과 같은 성공담은 기업가 정신을 북돋운다. 기업가(entrepreneur)를 엄격하게 정의한다면 혁신적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해당 사업체가 혼자 다루기에 역부족이거나 소수의 사람만으로는 운영이 힘들 정도로 크게 되는 경우 기업가는 총괄 경영자가 된다. 기업가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도 사업체가 성장하여 몇몇 종업원을 두게 되는 경우 경영자가 된다. 자영업자는 심적, 물적 에너지를 자신의 사업체에 쏟아 붓는다. 주목할 점은, 기업가는 자영업자로 출발하지만, 자영업자 모두가 기업가인 것은 아니다. 기업가의 엄격한 정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샌드위치를 파는 프랜차이즈 운영자를 기업가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Andrew Durbin, *Essentials of Management*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범주화의 대상, 기준, 효과의 측면에서 각각 비교분석 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문제 4

〈자료 3〉의 그래프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자료 5〉에서 사용된 범주화 방법, 즉 사전적 정의에 의한 방법에 적용하여 상상/맥락 조건하에서 컵과 그릇의 범주화를 재시도해 보시오. (500자 내외, 210점)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시험

출제 의도

Part 1에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의 ‘속도’ 문제를 핵심 논제로 하여 1개의 국문 〈자료〉와 1개의 영문 〈자료〉로 문제를 구성했다. 두 자료는 주제와 관련한 분야의 텍스트들이다. 문제는 자료의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두 자료의 상관관계를 적절하게 읽어내는 능력, 그것을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능력과 연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2〉는 영문으로 작성되었다. 영문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지식과 정보가 유례없이 빠르게 유통되는 지구촌 시대에 적합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매체가 되는 외국어 실력, 특히 영어 실력의 선취가 필수적이라는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교육정신 때문이었다. 영문 자료는 어휘, 통사구조, 개념과 관련하여 난이도 측면에서 고등학교 교과과정 영어 교과서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정도이고, 분량도 200단어 내외여서 의미 파악에 큰 어려움이 없는 글이다.

Part 2에서는 범주화와 관련된 세 개의 〈자료〉를 제시하였다. 범주화의 개념파악과 적용을 통해 학문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사고력 평가에 주안점을 두었다. 〈자료 3〉은 ‘컵(cup)’과 ‘그릇(bowl)’의 범주화 경계가 모호함을 보여준 Labov의 실험을 소개하는 글이다. 사물 이름에 대한 인간의 범주화는 대상 사물의 ‘폭-깊이 비율’ 같은 속성이나 그 사물이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달라진다는 점을 밝힌 글이다. 〈자료 4〉는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범주화 성향을 비평한 글이다. 우리 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편 가르기 현상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미를 고찰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자료 5〉는 마이클 델과 같은 기업가의 성공을 사례로 사업체 운영자의 유형을 ‘기업가(entrepreneur)’와 ‘자영업자(small-business owner)’로 구분하는 글이다.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혁신성을 갖추어야 함을 강조한 글로서 국제화 시대에 혁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료 출전

논술고사에 활용된 국문과 영문 <자료>는 독립된 저작물에서 추출하기보다는 원저에서 관련 내용을 추출한 다음 이를 출제의도에 맞게 가공하여 사용하였다. 국문 <자료>는 국내 여러 일간신문의 논설, 기사 중에서 필요한 내용을 추출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운문하여 사용하였다. 논술고사에 활용된 <자료>의 출전은 다음과 같다.

<자료 1> 국내 여러 일간신문의 논설, 기사 중에서 필요한 내용과 표현을 추출하여 수정 및 편집

<자료 2> Oxford Economics에서 출간한 연구보고서인 *The New Digital Economy*에서 핵심 문구를 추출하고 이를 문맥에 맞게 편집, 첨삭

<자료 3> John Anderson,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자료 4> 강준만, 『한국인의 범주화 기질과 본질주의 성향』, <인물과 사상>, 2007.

<자료 5> Andrew Dubrin, *Essentials of Management*

각 자료 요지

<자료 1> 국내 일간지 관련기사 및 사설을 바탕으로 발췌 및 변용한 것으로 ‘빠른 속도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요구’의 부작용을 지적하고 ‘느림의 미학’으로의 방향전환을 주장하는 내용의 국문 <자료>이다.

<자료 2> Oxford Economics의 연구보고서 *The New Digital Economy*에서 발췌 및 변용한 것으로 디지털 신경제 체제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스피드’의 중요성을 역설한 영문 <자료>이다.

<자료 3> 이 글은 컵과 그릇을 대상으로 중립적인 조건과 상상/맥락적 조건에 따라 언어사용자들의 반응을 실험한 내용이다. 이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폭과 깊이의 비율을 지닌 용기를 컵 또는 그릇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확실한 기준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특히, 상상/맥락의 조건을 부여했을 때는 중립적인 조건과는 또 다른 양상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 실험을 통해 언어사용자들은 용기의 폭과 깊이의 비율에 따라 점차 컵에서 그릇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중립적 조건과 상상/맥락적 조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 4〉 한국인은 사회문화 풍토에 따라 발전된 ‘구별 짓기’를 잘하는 성향이 있다.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일을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기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사회에서는 자연스러운 ‘구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범주화를 지속하고 있다.

〈자료 5〉 경영자는 종업원을 두고 운영하는 기업가나 자영업자를 말한다. 단, 기업가는 자영업자와는 달리 혁신적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기업가는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정의를 근거로 범주화한다면 혁신성 여부에 따라 사업가를 기업가와 자영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내용적 측면

- ① 한국의대의 키워드인 국제(international studies), 문화(cultural studies), 언어(language studies)의 내용요소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의 지문을 활용한다.
- ② 한국의대의 통합논술 교육의 목표인 1. 통합적 통찰 능력 및 인식 능력의 함양, 2. 통합적 비판 능력과 판단 능력 고양, 3. 전문인으로서 적합한 통합적 탐구 능력과 통합적 적성 개발, 4. 올바른 가치관 정립, 5. 정보화 시대의 통합적 정보 취득 역량 함양, 6. 논리적이면서도 창의적인 표현 능력 개발의 취지를 고려하여 자료를 선정하였다.
- ③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④ 문학, 비문학 지문을 고루 활용하되 제시문은 개념과 쟁점을 도출할 수 있는 지문을 활용하였다.
- ⑤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 ⑥ 실험결과, 비평, 개념 적용 사례의 다양한 범주의 내용과 도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하였다.
- ⑦ 기본적인 학습 역량에 주안점을 두어 앞의 두 문제에서는 요지 파악, 비판 평가를, 뒤의 두 문제에서는 비교분석, 적용 및 추론능력을 물을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형식적 측면

- ① Part 1에서는 국문, 영문〈자료〉하나씩으로 구성하고, Part 2에서는 국문〈자료〉세 개로 지문을 구성 하였다.
- ② 첫 번째 문항은 요지를 서술하도록 하였다.
- ③ 두 번째 문항은 비판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도록 출제하였다.
- ④ 세 번째 문항은 〈자료 3〉과 〈자료 4〉의 비교 대상을 제시하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분석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 ⑤ 네 번째 문항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범주화한 사례를 이해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범주화의 실험결과 그래프를 재해석할 수 있는지 논리적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출제하였다.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시험

Part 1

〈자료 1〉 출처 : 국내 일간지 관련기사 및 사설을 바탕으로 작성

〈자료 2〉 출처 : Oxford Economics의 *The New Digital Economy*를 바탕으로 작성

〈자료 1〉의 우리말 번역

신경제를 구경제와 구분해주는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스피드’이다. 스피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디지털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기업들은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층 더 다가서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맥락에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여 기업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위계질서에 따른 전통적인 의사결정은 너무 느려서 새로운 디지털 마켓의 현실에 대처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대부분의 현존하는 지식경영과 보고체계는 빠른 경영활동에 도움을 줄 수 없는 구조이다. 점증하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이 민첩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 기업은 사업 전개과정 중이라도 신속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프로세스, 전략 및 비즈니스모델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 변화무쌍한 글로벌 무대에서 상품개발 및 자원조달전략은 한층 더 빠르게 재편되어야 한다. 글로벌 신경제하에서 비즈니스 성공의 열쇠는 급변하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스피드인 것이다.

문제 1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각각 서술하시오. (200자 내외, 100점)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

〈자료 1〉 자본주의는 인간에게 빠른 속도를 강요함으로써 걸음걸이 속도마저 변화시켰다. 한국식 속도전 문화는 긍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제 지속가능성을 중시하는 느낌의 미학을 추구해야 할 때이다.



〈자료 2〉 디지털 신경제 체제로 변모한 현 시장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속도(스피드)이다. 전통적인 경영방식에서 탈피하고 실시간으로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민첩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평가지침

이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시장경제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담은 〈자료〉에 대해 각 주장에 대한 요지를 추출하여 기술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상반된 두 〈자료〉를 200자 내외로 짧게 요약하여야 하므로 핵심어를 찾아 기술하여야 하며 이를 간명한 서술로 연계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압축적 근대화에 따른 부작용, 디지털 경제체제의 도래 등에 관한 주제는 고등학교 「한국 근·현대사」, 「경제」, 「사회」 등의 교과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서 수험생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고, 교육방송 교재에서도 지속적으로 다루어지는 내용이므로 고등학생들이 큰 어려움 없이 주제를 파악하고 요지를 추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채점 시에는 정확한 요지파악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각각의 〈자료〉에 대해서는 100자 내외의 상당히 짧은 서술이 할당되므로 표현력이나 논리적인 구성력을 보기보다는 핵심논지를 적절히 추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가 곧 배점의 기준이 되므로 간명하고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하다.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A0
	A-
B	B+
	B0
	B-
C	핵심어를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각 자료의 요지를 적절히 서술하지 못한 것
D	핵심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였고, 각 자료의 요지를 서술하지 못한 것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2

〈자료 2〉의 관점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논하시오. (500자 내외, 210점)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 논제는 ‘속도’이다. 〈자료 1〉은 빠른 속도를 지향하는 근대 자본주의의 요구가 인간적 가치나 행복감의 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보고 지속가능성과 느낌의 미학으로의 방향전환을 요청한다. 반면 〈자료 2〉는 디지털 신경제하에서 기업이 성공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속도(스피드)이므로 급변하는 현실에 대응하는 민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가지침

이 문제는 자본주의와 신경제체제하에서 ‘속도’를 바라보는 〈자료 1〉과 〈자료 2〉의 상반된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따라서 답안을 작성할 때 〈자료 1〉의 내용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의 타당성을 인정하되 〈자료 2〉에 나타난 스피드의 중요성 측면에서 〈자료 1〉의 주장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문제의 초점은 서로 다른 관점의 두 자료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파악하고 현실을 다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있다. 지나친 속도추구의 부작용을 인식함과 더불어 오늘날 변화된 경제 현실에서 빠른 속도의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회적 차원에서는 속도의 포기가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파악해야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나 느낌의 미학이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갖는 중요성을 이해함과 더불어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변화된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지적하게 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전자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요청하거나 지속적인 성장 동력의 필요성 등을 기술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 <자료 1>과 <자료 2>가 연계되어야 함 - 현대사회, 경제체제에서 더욱더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는 '속도의 중요성'이 지적되어야 함.
	A0	- 지나친 속도추구의 부작용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는 속도의 포기 가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음이 지적되어야 함
	A-	- 변화된 현실에 대한 다면적 인식과 평가, 즉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견해가 필요함
B	B+	<자료 1>과 <자료 2>의 시각의 차이를 올바르게 파악하였으나 <자료 1>의 취지를 무시하거 나 간과하였을 경우
	B0	
	B-	
C		<자료 1>과 <자료 2>의 시각의 차이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D		<자료 1>과 <자료 2>의 요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Part 2

〈자료 3〉 출처 : John Anderson,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자료 4〉 출처 : 강준만, 『한국인의 범주화 기질과 본질주의 성향』, 〈인물과 사상〉, 2007.

〈자료 5〉 출처 : Andrew Dubrin, *Essentials of Management*

〈자료 3〉, 〈자료 4〉, 〈자료 5〉의 요지

〈자료 3〉 '컵(cup)'과 '그릇(bowl)'의 범주화 경계가 모호함을 보여준 Labov의 실험을 소개한 글이다. 우리는 단어를 사용하여 개념을 범주화하지만, 각각의 단어가 의도한 범주 항목에 무엇을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다. '컵(cup)', '그릇(bowl)' 같은 사물 이름에 대한 범주화는 대상 사물의 '폭-깊이 비율' 같은 속성뿐 아니라 그 사물이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달라진다.

〈자료 4〉 한국인의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범주화 성향을 비평한 글이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인은 사람을 만날 때, 나이, 고향, 출신 학교 등 신상명세를 기준으로 상대방을 분류한다. 이러한 범주화 능력/기질은 한국 사회의 문화적 동질성이나 높은 인구밀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람을 신상 특징에 따라 범주화하는 기질로 인해 편견과 '편 가르기'가 생겨나기도 한다.

〈자료 5〉 마이클 델과 같은 기업가의 성공을 사례로 사업체 운영자의 유형을 ‘기업가(entrepreneur)’와 ‘자영업자(small-business owner)’로 구분하는 글이다. 저자에 따르면, 기업가와 자영업자로 범주화하는 기준은 ‘혁신적 아이디어의 유무’이다. 샌드위치를 파는 프랜차이즈 운영자가 자영업자는 될 수 있어도 기업가로 분류되지 않는 이유는 ‘혁신적 아이디어’의 부재 때문이다.

문제 3

〈자료 3〉과 〈자료 4〉를 범주화의 대상, 기준, 효과의 측면에서 비교분석 하시오. (400자 내외, 180점)

평가지침

제시된 자료를 관통하는 공통의 주제는 ‘범주화(categorization)’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자료 3〉에서 논의한 범주화와 〈자료 4〉에서 논의한 범주화를 대상, 기준, 효과 측면에서 비교하여 논술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초점은 〈자료 3〉과 〈자료 4〉에 대해 ‘범주화의 대상’, ‘범주화의 기준’, ‘범주화의 효과’를 빠짐없이 대응시켜 논술함으로써 마치 교차분석표(cross-tabulation)를 말로 풀어쓴 듯 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따라서 좋은 답안은 다음의 내용적 요소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구분	〈자료 3〉	〈자료 4〉
범주화의 대상	용기 또는 사물/어휘의 개념 (예: ‘컵’, ‘그릇’)	(인간관계 속에 등장하는) 상대방/사람
범주화의 기준	사물의 속성	상대방의 나이, 고향, 출신 학교 등 신상명세
범주화의 효과	명확한 범주화가 불가능하며, 특정 범주 에서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는 경우와 인접 범주의 경계에 놓일 수 있는 애매한 사례가 발생함	편견, 편 가르기, 패거리 문화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지문을 비교하여 일반적인 논제가 다양한 소재에 대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발견 및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범주화의 대상, 기준, 효과에 대해 <자료 3>과 <자료 4>를 모두 포함시켜 논술해야 함. 모범 답안의 구성 요소는 '평가지침'에 나오는 6개 사항임: ① 대상-<자료 3>, ② 대상-<자료 4>, ③ 기준-<자료 3>, ④ 기준-<자료 4>, ⑤ 효과-<자료 3>, ⑥ 효과-<자료 4>. 이 6개 내용 항목 중 1개 또는 2개 항목을 생략했거나 기술했어도 논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 A0 또는 A-로 판정함
	A0	
	A-	
B	B+	① 대상-<자료 3>, ② 대상-<자료 4>, ③ 기준-<자료 3>, ④ 기준-<자료 4>, ⑤ 효과-<자료 3>, ⑥ 효과-<자료 4>의 6개 내용 항목 중 3-5개 항목을 생략했거나 기술했어도 논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 B+, B0 또는 B-로 판정함
	B0	
	B-	
C		범주화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기술하였으며, 그 내용이 주어진 자료와 최소한의 논리적 연관성을 갖는 경우
D		범주화에 대한 포괄적 의견을 기술하였으나, 그 내용이 주어진 자료와 논리적 연관성을 거의 갖지 않는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문제 4

<자료 3>의 그래프에 나타난 실험결과를 <자료 5>에서 사용된 범주화 방법, 즉 사전적 정의에 의한 방법에 적용하여 상상/맥락 조건하에서 컵과 그릇의 범주화를 재시도해 보시오. (500자 내외, 210점)

평가지침

이 문제는 먼저 상상/맥락 조건하에서의 실험결과인 두 점선에 대한 관찰을 통해 컵과 그릇에 대한 인식의 경계점을 찾아낼 수 있는지 해독력을 묻고 있다. 따라서 인식의 경계점으로서의 두 점선의 교차점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 이 교차점에서는 컵이라고 명명한 응답률과 그릇이라고 명명한 응답률이 같으므로 인식의 경계점으로 추론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교차점에 해당하는 X축은 대략 1.4의 폭-깊이의 비율을 가진다.

둘째, 폭-깊이 비율이 대략 1.4인 용기에 대해 피험자들의 응답률이 같았으므로, 이를 범주화 기준으로 삼아 <자료 5>에서와 같이 사전적 정의를 내리고 컵과 그릇을 재범주화 하면 된다. 즉, 이 실험결과를 <자료 5>의 범주화 방법에 적용해 사전적으로 정의해본다면 폭-깊이 비율이 1.4보다 작은 용기는 컵으로, 1.4보다 큰 용기는 그릇으로 구분하는 범주화를 재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채점기준 : A0 또는 B0를 기준으로 하며, +, -를 가감함.

등급		기준
A	A+	아래의 세 가지 사항이 필히 지적되어야 함 첫째, 상상/맥락 조건하에서의 두 점선의 교차점이 인식의 경계점이라는 언급이 필요함. 왜냐하면 교차점에서는 컵이라고 응답한 비율과 그릇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같기 때문 둘째, 폭-깊이 비율이 대략 1.4인 용기에 대해 피험자들의 응답률이 같았다는 사실을 기술해야 함 셋째, 이 실험결과를 <자료 5>의 범주화 방법에 적용해 정의해야 함. 즉, 폭-깊이 비율이 1.4보다 작은 용기는 컵으로, 1.4보다 큰 용기는 그릇으로 구분하는 재범주화 내용을 기술해야 함
	A0	
	A-	이 3가지 사항 중 1개 항목을 생략했거나, 기술했어도 논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 A0 또는 A-로 판정함
B	B+	- 실험결과를 잘 해독하여 교차점을 언급하였으나, 사전적 정의를 통한 재범주화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
	B0	
	B-	- 기술 내용이 미흡한 경우, B0 또는 B-로 판정함
C		실험결과를 잘못 해독하여, 재범주화를 시도한 경우
D		실험결과에 대한 잘못된 해석만을 기술하거나, 또는 재범주화에 대한 잘못된 내용만을 기술한 경우
F		문제와 상관없는 내용을 기술한 것

※ 결시 및 부정행위자, 백지 답안의 경우 최저점(F)은 전체 '0'점 처리함.



15 2015학년도 모의논술 예시답안

201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 대비 모의시험

문제 1

(200자 내외)

〈자료 1〉과 〈자료 2〉의 공통 논제는 ‘속도’이다. 〈자료 1〉은 빠른 속도를 지향하는 근대 자본주의의 요구가 인간적 가치나 행복감의 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낳았다고 보고 지속가능성과 느낌의 미학으로의 방향전환을 요청한다. 반면 〈자료 2〉는 디지털 신경제 하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빠른 속도이며 따라서 급변하는 현실과 고객의 요구에 대응하는 민첩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 2

(500자 내외)

자본주의적 속도의 논리가 인간을 압박하여 인간적 가치와 행복감의 저하를 불러왔다는 〈자료 1〉의 논지는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압축적 근대화를 이룩한 한국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첨예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디지털 신경제 체제 하에서 빠른 속도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자료 2〉의 논지에서 볼 때 〈자료 1〉의 주장은 한계를 지닌다. 급변하는 현실과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특징으로 하는 신경제 체제에서 빠른 속도는 더욱더 중요해졌다. 현실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글로벌 신경제 하에서 핵심적인 생존 전략이다. 개인적 삶의 차원에서 느낌의 미학이 갖는 가치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그것이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달리는 기차의 가속페달에서 무작정 발을 뗀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인간적 가치를 회복하고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대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성장의 동력을 끊어버리지 않는 지혜가 요구된다. 변화하는 현실을 외면하고 과거로 퇴행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서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다.

문제 3

(400자 내외)

1. 범주화 대상: 〈자료 3〉은 폭과 깊이의 비율이 다른 다섯 가지 용기(또는 컵과 그릇), 〈자료 4〉는 처음 만난 사람을 범주화 대상으로 한다.
2. 범주화 기준: 〈자료 3〉은 용기의 폭과 깊이의 비율(속성)을, 〈자료 4〉는 처음 만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나이, 고향, 출신 학교 등 신상 명세와 같은 기본 정보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3. 범주화 효과: 〈자료 3〉의 실험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폭-깊이 비율이 다른 다섯 가지 용기를 일관성 있게 컵과 그릇으로 구분하기는 힘들다. 즉, 용기들에 대한 범주화는 그 속성과 그 사물이 주어지는 맥락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한편 〈자료 4〉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을 상대방의 나이, 고향, 출신 학교 등 신상 명세와 같은 기본 정보를 기준으로 범주화함으로써 편견과 편 가르기가 유발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낳는다.

문제 4

(500자 내외)

〈자료 3〉의 그래프에 제시된 두 점선은, 폭-깊이가 다른 다섯 가지 용기가 탁자 위에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으깬 감자가 들어있다고 실험참가자들에게 상상하게 한 뒤 컵과 그릇 중 무엇으로 인지했는지 그 반응 결과를 나타낸다. 컵이라고 반응한 응답비율은 깊이에 대한 폭의 비율(폭-깊이 비율)이 1.2인 용기로부터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1.9 이상인 용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컵이라고 대답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릇이라고 반응한 응답비율은 폭-깊이 비율이 1.2인 용기로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다. 깊이에 대한 폭의 비율이 2.5인 경우가 1.9인 경우보다 응답율이 약간 적은 이유는 회답율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프상 주목할 곳은 두 점선이 교차하는 지점으로서 대략 1.4의 폭-깊이 비율을 갖는다. 인간의 반응이 항상 선형적이지 아닐 수 있고, 폭-깊이 1.4 비율을 가진 용기에 대해 직접 실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 용기에 대해서 컵이라고 명명한 비율과 그릇이라고 명명한 비율이 같으므로, 폭-깊이 비율 1.4인 용기를 컵과 그릇에 대한 인식의 경계점으로 추론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결과를 〈자료 5〉의 범주화 방법에 적용해 사전적으로 정의해본다면 폭-깊이 비율이 1.4보다 낮은 용기는 컵으로, 1.4보다 높은 용기는 그릇으로 구분하는 범주화를 제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16 한국외대 논술 가이드북

발행일	2015년 7월
발행인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장 유기환
발행처	한국외국어대학교 입학처 입학관리팀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본부 1층 입학처 전화 02) 2173-2076~8 팩스 02) 2173-3366 홈페이지 http://adms.hufs.ac.kr
디자인·편집	(주)이환디앤비 02)2254-4301

〈본 논술 가이드북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있습니다.
본교의 허가 없이 무단 복제, 출판, 사용할 수 없습니다.〉



H U F S

V E R I T A S

P A X



C R E A T I O



한국외국어대학교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http://adms.hufs.ac.kr>

서울캠퍼스 입학관리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T. 02. 2173. 2076~8

F. 02. 2173. 3366

입학사정관실

T. 02. 2173. 2083~9

글로벌캠퍼스 입학관리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T. 031. 330. 4299, 4399, 4599